

이화동창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 고사리수련관 / 이화인 모임 탐방-이화공인회계사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02

04

12

이화동창

2018년 봄 제150호



표지화

오용길(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이화교정

(화선지에 수묵담채, 48×64cm)

- | | |
|--|---|
| 02 2018년도 정기총회
04 2018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
06 2018년도 정기총회 개회사
07 2018년도 신입 동창 환영사·답사
08 2018년도 사업계획안
09 만나고 싶었습니다
12 모교사용설명서
15 축하합니다
17 총동창회 소식
18 선교부 소식
20 나의 스승 나의 제자
25 모교 소식
28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32 선교지에서 온 편지
34 이화의 이곳저곳
38 이화인 모임 탐방
41 대학(원) 소식
45 과(학부) 소식
52 지회 소식
61 동창 근황
72 동창이 펴낸 새 책 | 2017년 감사 및 사업 보고, 결산안 승인과 2018년 사업계획안 승인
2018년도 신입 동창 환영식 열어, 신입 동창 25명에게 장학금 수여
김영주 총동창회장
봉지희 조형예술대학 동창회장, 장유정 신입 동창

50년 만의 졸업, 사학과 1기생 박경희 동창
고사리수련관 이용법
신경림 동창 외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 및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심의
성령의 열기가 뜨겁던 겨울 수련회
박보희 전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제자들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외
100% 천연 화장품 만드는 이진민 동창
많은 도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대강당
이화공인회계사회
음악대학 외
중어중문학과 외
남가주(LA) 지회 외
김양식 동창 외
『분노의 포도』 외 |
|--|---|

편집위원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

정준순(약학 72, 부회장)

김광옥(식영 75, 부회장)

이명실(영문 78, 총무)

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임은실(국문 86)

박종분(중문 89)

정진숙(행정 89)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 2018년 봄 150호

발행 2018년 4월 10일 | 발행인 김영주 |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 전화 02-3277-3386~7 |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http://www.ewhaalum.or.kr) | 편집 문화정원 | 인쇄 제이오 |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8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2018년도 정기총회

2017년 감사 및 사업 보고, 결산안 승인과 2018년 사업계획안 승인 및 총동창회의 사업 보고

‘최초’의 기록을 세운 이화, ‘최고’를 지향하며 혁신하고 노력할 것

총동창회는 3월 10일(토)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모교 총장, 윤순희(교육 65)·김순영(약학 62)·조종남(의학 75) 총동창회 고문,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 정준순(약학 72)·김광옥(식영 75) 총동창회 부회장 및 230여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명실(영문 78)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과 개회사, 전회의록 낭독, 2017회계연도 감사·사업 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모교 소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화는 한국 최초의 여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내에서 수많은 ‘최초’의 타이틀을 가진 교육 기관이자,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교”라고 강조한 뒤, “이화가 가진 ‘최초’의 기록은 절대로 바뀔 수 없지만 ‘최고’의 기록은 얻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켜보며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 총동

창회장은 “그럼에도 이화가 ‘최고’를 지향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땀 흘리고 노력하며 부단히 혁신하는 것이 바로 이화 본연의 모습이며 이화의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지난 2년간 어려운 시절을 헤쳐 온 모교 이화가 끊임없는 혁신과 도약을 하려는 이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총회에 참석해 주신 동창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2017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은 한미경(물리 88) 서기가 낭독한 후 손혜진(유교 06) 동창의 동의와 신은영(정외 86) 동창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하고 가결되었다. 이어진 2017회계연도 감사 보고에서 남상택(물리 74) 감사는 총동창회 회칙 제9조 3항에 의거, 2017년 3월 1일(수)부터 2018년 2월 28일(수)까지 대차대조표, 운영 계산서 및 관계 장부와 제 증빙서류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총동창회가 규모 있게 살림을 꾸린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를 마쳤다.

신입 동창 입회비 저조의 아쉬움 남아

이어 이명실 총무가 2017회계연도 사업 보고를 하였으며, 정영출(경영 72) 회계가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였다. 김상희(가관 81) 동창이 동창회발전연구적립금의 용처에 관해 질문하자,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동창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기금으로 적립금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총동창회의 인준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목적 적립금”이라고 설명하였다. 임정희(가관 79) 동창이 신입 동창 입회비



1. 김영주 총동창회장
2. 김혜숙 모교 총장
3.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4. 윤순희 총동창회 고문
5. 김순영 총동창회 고문
6. 조종남 총동창회 고문



의 납부 상황에 관해 질문하자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총 329명 납부했으며, 해마다 입회비 납부율이 줄어들어, 2017년도 졸업생의 납부 비율은 10%미만”이라고 답했다.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는 유청옥(유교 88) 동창의 동의와 이현미(의직 85) 동창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하고 가결되었다.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은 이명실 총무가 보고하였으며, 정영출 회계가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하자, 장 미현(건축 00) 동창이 총무부 예산 증가분에 관해 질문하였다. 이에 정영출 회계는 2018회계연도 예산 산출 근거 (정기총회 비용 3,500,000원, 동창의 날 비용 4,500,000원)로 작년 대비 3,000,000원 증액하였다고 답하였다. 예산안은 우숙영(피아노 87) 동창의 동의와 오숙영(사회 77) 동창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하고 가결되었다.

이어 김혜숙 모교 총장이 단상에 올라 모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한 뒤 “이화의 힘은 23만 이화동창의 혼신, 봉사, 사랑에서 나온다”며 “모교는 이화의 두 근간인 ‘기독교 공동체’와 ‘여성 연대’를 잘 지켜나가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글로벌 전략을 잘 세워 세계 속의 이화로 우뚝 설 것”임을 강조하였다. 교가 제창을 끝으로 정기총회를 마친 동창들은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떡과 과자, 음료를 들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총동창에서 마련한 떡과 음료

2018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

2018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 열어 신입 동창 25명에게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

정기총회에 앞서 3월 10일(토) 오후 2시 2018년도 졸업생 약 3,500명이 총동창회에 신입 동창으로 입회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신입 동창 환영회가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열렸다.

허현미(체육 89) 회우부장의 사회로 열린 환영회는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를 부르며 시작하였다.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은 “이화가 자랑과 교만, 욕심 때문에 창립 초기의

기총회 및 신입동창회

■ 때: 2018년 3월 10일(토) 오후 2시 ■ 곳: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사명을 잊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며 주님께서는 “이화를 용서하고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려 달라”며 우리를 돌아보는 기도를 올렸다.

이어 봉지희(섬예 85) 조형예술대 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봉지희 회장은 “이화의 숭고한 가치를 지켜온 선배들의 땀방울과 발자취를 따라 새 시대의 역동적인 이화동창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이화가 세계만방에 사랑과 비전을 전할 수 있도록, 신입 동창들은 함께 힘을 모으고, 이화의 전통과 명예를 받들며 정진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장유정(식영 18) 신입 동창은 답사를 통해 “이화의 품을 벗어나 사회로 발을 내딛는 것이 두렵고 걱정되지만 후배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화에서 받았던 큰 사랑을 기억하기에 이화 공동체에 여러 방면으로 기여하는 선배가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신입 동창들에게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한 데 이어, 임소현(대학원 통계학과 재학) 동창 등 대학원에 진학한 신입 동창 25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총동창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이날 축가는 김윤아(성악 10) 동창의 <꽃구름 속에>와 <Il Bacio>(반주 신나래·피아노 12) 외에도 ‘올해의 이화인’으로 구성된 ‘행복한 합창단(단장:신난식·성악 73, 지휘:이수연·성악 92, 반주:장진영·피아노 06)’이 <주는 포도나무>를 들려주며 사회에 나온 신입 동창들의 앞날을 격려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원으로 입회한 것을 축하하였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1. 환영사를 하고 있는 봉지희 조형예술대 회장
2. 신입 동창을 대표해 장유정 동창이 답사를 했다
3. 25명의 장학금 수여자를 대표해 총동창회 장학금을 받은 임소현 동창(왼쪽)
4.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자들
5. 김윤아 동창의 축가
6. 올해의 이화인으로 구성된 ‘행복한 합창단’의 축가



혁신을 통해 더욱더 도약하는 이화가 되길!

김영주(총동창회장)



존경하는 이화동 창 여러분!

이화는 한국 최초
의 여성 고등교육기
관으로서 국내에서
수많은 ‘최초’의 태
틀을 가진 교육 기관
이자,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의 자랑스러운 모교라는 점을 이화동창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가
가진 ‘최초’의 기록은 절대로 바뀔 수 없지만 ‘최
고’의 자리는 모든 능력과 노력을 끊임없이 쏟아
부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최
고’의 자리를 차지한다 해도 그 순간이 찰나에 그
칠 수 있으며, 그 영광을 오래도록 유지하기는 더
욱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지
켜보며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자리는 0.001초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으며, 경쟁자가 있는 한 그 위치가 영속될 수 없
고 순위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이화가 ‘최고’의 자
리를 향해 도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창립 132년을 맞은 모교의 자랑스러운 역사
와 나눔과 섬김, 봉사라는 이화 정신의 숭고한 가

치를 단순히 순위 경쟁으로 치환하려는 마음은 없
습니다. 다만, 수많은 이화의 선각자들과 이화동창
들이 온몸과 마음을 다해 가꾸고 일군 우리의 이화
가 경쟁사회에서 더 이상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안
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화가 ‘최고’의 타이틀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최고’를 지향
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땀 흘리고 노
력하며 부단히 혁신하는 것이 바로 이화 본연의 모
습이며 이화가 가진 숭고한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난 2년간의 모교의 아
픔을 반성하고 되새기며, 다시 ‘최고의 이화’를 만
들기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이화의 선배, 동기, 후배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데 힘을 보탰지만, 앞으로 더욱더
모교와 이화동창이 한마음이 되어 이화의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큽니다. 이화동창 여러분께서도 모교와 총동창회에 더욱더 큰 힘을 보태
주려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진하고 혁신
하는 이화를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물러설 것 같지 않던 혹한의 추위도 이젠 계절
저편으로 사라지고 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
니다. 우리의 모교 이화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
회 그리고 이화동창 여러분 모두에게 따스한 봄기
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도 신입 동창 환영사

이화의 전통과 명예를 받들며 정진하기

봉지희(섬에 85, 조형예술대학 동창회장)



신입 동창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화여자대학교 동창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4년간 정든 이화의 캠퍼스에서 학문과 지성을 쌓아 왔다면 이제 이화동창이라는 더욱 큰 네트워크에서 동창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화에서는 4년간 공부하면 졸업하지만, 사회에서 배우는 교육은 인생의 길고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신입 동창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선배님들의 삶과 성취를 보며 귀감을 삼고,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이화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의 역사 속에 깃든 하나님의 비전과 선지자와 선각자였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화의 숭고한 가치를 지켜온 선배 동창들의 땀방울과 빛자취를 따라, 새 시대의 역동적인 이화동창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과 재작년 이화가 고난에 처했을 시, 동창들은 힘의 결집과 염원을 보여 주었고, 변화와 도전을 통해 이화가 거듭날 수 있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화가 세계 만방에 더욱 사랑과 비전을 전할 수 있도록, 이화동창들은 함께 힘을 모으고, 이화의 전통과 명예를 받들며 정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화 신입 동창들을 환영하며, 교가의 가사에서처럼, 이화의 향기가 넘치는 동창의 삶을 다 같이 펼쳐나갑시다.

2018년도 신입 동창 답사

학창시절 곳곳에 선배 들의 도움이

장유정(식영 18)



이화에 입학하기 전까지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일, 꿈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니 모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했고, 선택해야 했고,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이화에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닌 제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삶의 주체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인생의 주체가 되고 나니 꿈이 분명해졌습니다. 분명 고민도 많이 했고 괴로웠던 시간이 대부분이었지만, 건강한 어른이자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준 이화에 너무 감사하고 그 일원이 된 것이 행복합니다.

매주 대강당에서 채플을 들으며 앉았던 의자에, 기숙사 방문 옆에 후원해 준 선배님들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선배라면 장학금’을 받았던 동기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화동창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학교생활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화의 품을 벗어나 사회로 발을 내딛는 후배들이 아직 어설프고 부족한 면들이 많겠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에 있으면서 받았던 큰 사랑을 기억하기에 이화 공동체에 여러 방면으로 기여하는 선배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계획안

2018. 3. 1 – 2019. 2. 28



1.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3월 10일)
 2. 각 과(학부),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4월 26일)
 3. 제7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5월 12일)
 4. 이화 창립 132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5월 15일)
 5. 제14회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5월 26일)
 6. 동창의 날 행사(5월 31일)
- 총장 초청 오찬
기념식 – 제3회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
졸업50주년(1968년 졸업)·졸업30주년(1988년 졸업) 동창 재상봉 행사
‘올해의 이화인’ 추대
합창제
‘올해의 이화인’을 위한 다과회
7. 총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대バ자(9월 13일)
 8. 후원이사 간담회(10월 25일)
 9. 제17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11월 1일~11월 4일, 캐나다 토론토)
 10. 이화인의 밤 개최(11월 26일)
 11. 제13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11월 26일)
 12. 이화가족 성탄예배(12월 6일)
 13. 동창회보 150호~153호 발간(3, 6, 9, 12월)
 14. 국내 지회 활성화를 위한 지회 순방
 15. 연회비, 평생회비 납부회원 배가 운동(연중)
 16. 후원이사 증원(연중)
 17. 모교발전기금 모금(연중)
 18. 지원 사업(연중)
 - 1)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행사 찬조
 - 2) 나눔가게
 - 3) 학생군사교육단 입단식 후원
 19. 기념품 제작 및 판매(연중)
 20. 황화방 운영(연중)
 21. 기타

만나고 싶었습니다/
50년 만의 졸업, 사학과 1기생 박경희 동창

배움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청춘



“이화에 훌륭한 동창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나요.” 전화기 저쪽에서 박경희(사학 05) 동창은 인터뷰를 조심스레 사양했다. 사회적 성공이나 성취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인데,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학교 선배님과 후배가 만나 교훈적인 이야기만 나누나요. 그냥 수다도 떨 수 있지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박경희 동창과의 만남.

그는 1956년 모교 사학과에 입학한 사학과 1기

생이다. 그러나 졸업은 2005년에 했다. 3학년 1학기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학교를 그만두었고, 모교의 금혼학칙이 폐지된 2003년에 67세 나이로 복학하여 입학 50년 만에 졸업장을 받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2016년 KBS 2TV에서 방영된 <해피선데이-1박2일>의 ‘이화여대’ 편에서 보았을 것이다. 3회에 걸쳐 방영된 방송의 마지막 날 ‘마지막 특강’ 시간에 박경희 동창이 등장해 ‘선배 특강’을 한 것이다.

8남매의 맏이로서 동생들의 대학 공부를 위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이야기, 그러나 결혼 후에도 배움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했기에 50년 만에 학교로 돌아와 남은 공부를 마친 사연을 들려준 그는 후배 재학생들에게 보내는 연애편지도 낭독했다. ‘꽃같이 어여쁜 이화여대 후배님들에게’로 시작되는 편지의 내용은 이랬다.

요즘 대학생들을 보니, 취업이다 결혼이다 여러 고민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힘들 때는 너무 애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기를 쓰고, 막 애쓰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80년 인생을 살아보니, 꼭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언젠가는 어느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토끼처럼 빠르게 뛰어서 가도 정상에 갈 수 있고,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도 그곳에 닿을 수 있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나처럼 50년 만에 졸업장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천천히, 두려움 없이 시작하세요.

박 동창의 진솔한 이야기와 편지는 그 자리에 있던 이화 후배들은 물론 시청자들에게도 잔잔한 감동과 위로를 주었다. 무한경쟁과 노력을 강요하는 사회에 지친 이 시대 젊은이와 현대인들에게

이런 다독임을 줄 수 있는 어른은 그 자체로 ‘힐링’ 아닌가. 본인은 평범하기 그지없다 했지만, 이런 ‘특별한 평범’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만나고 싶었다.

50년 만에 돌아온 학교, 배울 게 많아 행복했다

우선, 학교에 돌아왔을 당시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스무 살을 갓 넘어 떠난 학교를 일흔 가까운 나이에 돌아와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

“2003년 재입학 당시 총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배님들이라도 성적은 못 봐드립니다. 요즘은 상대평가라서 예외를 두면 젊은 후배들이 피해를 입어요’라고. 나 역시 폐 끼치는 대학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내 힘으로 장학금도 받고 싶었죠.”

50년 만에 학교에 돌아오니 모든 게 바뀌어 있었다. 강의는 칠판 대신 파워포인트 화면을 띠워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필기 대신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다. 한번은 손으로 쓴 과제물을 실로 곱게 묶어 과사무실로 갔다가, 컴퓨터로 쳐서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생전 처음 자판 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엑셀과 파워포인트도 익혔다. “힘들지 않았느냐고요? 공부하고 싶어 학교에 온 건데, 배울 게 많으면 신나죠, 뭐.”

학과 공부는 더욱 재미있었다. 흔히들 사람들이 공부는 때가 있다고, 젊어 공부해야 머리에 잘 들어온다고 하는데, 나이 들어 공부하면 암기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산세월만큼 이해력이 깊어져, 젊을 때와는 또 다른 공부 재미를 느끼게 된다. 더구나 오랫동안 원하던 공부였으니 힘든 줄도 모르고 빠져들었다. 젊은 후배들과 나란히 공부하여 학점 3.5 이상을 유지했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다.



스무 살 시절의 대학생
박경희 동창(위)
2005년 2월, 입학 50년
만에 졸업 학사모를 쓴
박경희 동창(아래)

“남편이 오랫동안 투병 중이어서 간병과 학업을 병행했죠. 남편은 내가 학교 가는 걸 많이 응원해 주었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장학금 받을 자격을 얻으려고 더 열심히 했어요.”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약물재활학과에 편입했다. 남편을 오래 간병하면서 생긴 약물에 대한 관심이 이런 공부 인연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의 아들이 일찌감치 의학 공부에 뜻을 두고 의사가 된 것도 아픈 아버지를 보며 자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약물재활학과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 했어요. 학교 차원에서 교도소나 병원에 찾아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마약중독과 재활에 관해 상담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내 작은 힘도 누군가에게는 절실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심금을 울렸어요.”

박 동창은 봉사를 통해 나눔의 가치, 누군가에

게 좋은 기운을 주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박 동창에게 행복의 원천은 배움이었다.

열 가지 악기를 배우는 새로운 꿈에 도전하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공허한 마음을 다잡던 박 동창은 삶의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생전에 열 가지 악기를 배워 연주하는 것.

남편 요양을 위해 선택했던 강화도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 삼성동으로 이사한 그는 82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바쁜 하루를 보낸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시니어센터. 이곳에서 하모니카도 배우고 단소와 바이올린도 배운다.

지금 그는 열 가지 악기 연주 목표를 향해 차근 차근 다가가는 중이다. 오카리나, 장구, 피아노, 소금, 해금 등에도 도전하여 일단 열 가지 악기는 만져본 셈이다. 요즘은 지하철을 타고 방배역 가까이에 있는 백석예술대학교까지 가서 가야금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제법 잘 다루는 악기도 있고 아직은 쉽지 않은 악기도 있다. 모두 능수능란하게 연주할 욕심은 부리지 않는다. 그저 좋아하는 노래 한두 가지씩이라도 잘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는다.

바이올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하면 남편과 살던 강화도 시절, 봄에 복숭아꽃잎 분분히 날리던 모습이 눈에 떠오른다. 아파도 행복하던 시절 이었다. 하모니카로는 <황성 옛터>를 부는데, 그럴 때마다 지내온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피아노로 <에델바이스>를 치면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한 장면이 떠오르고, <언덕 위의 집>을 칠 때면 신혼 시절의 작은 방이 생각난다. 가야금으

로 <아리랑>을 연주할 때면 그저 가락에 젖어 행복할 뿐이다. 이 좋은 것을 혼자 즐기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하모니카 반 동료들에게는 바이올린도 배우라고 부추기고, 바이올린 반 친구들 몇은 또 하모니카 반으로 이끌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게서도 삶을 배우는 나는 아직도 청춘

박 동창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다. 조금 더 실력을 갈고닦아 준비가 되면, 병원 환자들이나 혹은 그의 음악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음악을 연주하고 들려주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가 바쁘다. 혹 어떤 이가 혼자 지내는 삶이 외롭지 않느냐고 물으면 ‘남편의 빈자리를 열 개의 악기 애인이 채우고 있다’고 대답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길 바닥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박 동창에게 타고 난 건강 체질이시냐 물으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병 없이 늙는 게 그리 쉽나요. 나 역시 암도 겪어 보고 크고 작은 질환도 지나왔지요. 그런데 또 건강은 마음도 중요해요. 걸어 움직일 만해지면 나는 내 몸이 건강하다 믿고 최대한 움직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배움인데, 멈출 수가 있나요. 보도블록 사이를 비집고 나온 작은 풀 한 포기에게서도, 더할 수 없이 처연하고 조촐하게 지는 무궁화 꽃에게서도 삶을 배웁니다. 배움이 있는 한 나는 여전히 현역이고 청춘이지요.”

박 동창의 말대로, 그는 평범한 사람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이처럼 밀도 있게 살아내는 ‘프로’가 있을까.

글·임은실(국문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고사리에서 1박 2일 동창회를!

문경새재는 예부터 영남과 충남을 잇는 중요한 관문으로, 조선시대에 경상도 선비들이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통로였다. 이화의 고사리수련관이 자리한 고사리(古沙里)라는 동네는 경북 문경에서 제1, 제2 관문을 지나 세 번째 관문을 통해 닿는 충북 괴산의 첫 마을로, 새들도 고개를 쉬어가며 넘는다는 조령(鳥嶺), 즉 새재의 아랫마을이다.

생전의 김옥길 전 총장이 은퇴 후에 고향인 평남 맹산의 산세를닮은 이곳을 거처로 삼아 만년을 보낸 것이 인연이 되어, 1985년 모교 고사리수련관이 완공되었다. 뒤로 백두대간 조령산 자락을 병풍처럼 두르고 양 옆과 앞에는 키다리 적송이 울울창창하게 둘러싸고 있는 이곳 고사리수련관은 심심산골 안에 자리한 뜻밖의 별천지다.

모교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수련회, 모교가 주최하는 각종 학회와 국제행사 장소로 사용되던 이곳은 이제 이화뿐 아니라 전국의 학교, 교회, 사회단체, 학회, 기업 등 번다한 도회를 벗어나 몸과 마음을 비우고 씻어내며 새로운 활력과 교양을 충전하려는 모든 단체객들의 휴양과 교육을 위한 최적의 쉼터로 제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별관인 금란서원의 숙소는 독립된 객실과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특별한 휴식을 원하는 가족이나 개인 단위의 여행객에게 안성맞춤이다.

고사리수련관 본관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사리수련관 본관은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기품이 있다. 사람에 비유해 보자면 숲속의 은자(隱者)이 되 자꾸 눈길이 가는 사람이라고 할까? 여기라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기운을 받아, 일이든 휴식이든 텁워크 증진이든 다 잘될 것만 같다.

건물은 학생동 객실과 교수동 객실, 강당과 소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학교 수련회는 물론 기관이나 단체의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하기에도 좋다. 강당에는 음향



키다리 적송에 둘러싸인 고사리수련관 전경

1. 고사리수련관 1층 로비
2. 빙 프로젝터와 음향시설이 갖춰진 강당
3. 고사리수련관 야외식당
4. 고사리수련관 식당



시설과 프로젝터가 갖춰져 있고, 식당에서는 신선한 제철 재료로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한다.

수련관 이용조건은 40인 이상의 단체로 14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학생동 객실을 3개 이상 사용해야 하고, 이럴 경우 교수동 객실은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 수영장과 운동장, 야외식당 등이 있고,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장작도 구비되어 있다.

고사리수련관 별관 – 금란서원

이번에는 별관으로 가보자. 본관에서 나와 완만히 경사진 언덕길을 10분쯤 걸어 올라가면 별관인 금란서원이 나온다. 이곳에는 김옥길 전 총장이 만년을 보낸 집 금란정이 있고, 객사로 쓰이는 경원정, 인수정, 서은당 및 관리동이 있다.

초가집, 기와집, 시원한 대청마루가 땔린 집도 있고, 침실도 하나인 곳부터 세 개인 곳까지 있으니, 한 가족이든 여러 가족이든 여행객 규모와 콘셉트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집집마다에는 욕실 및 화장실과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고,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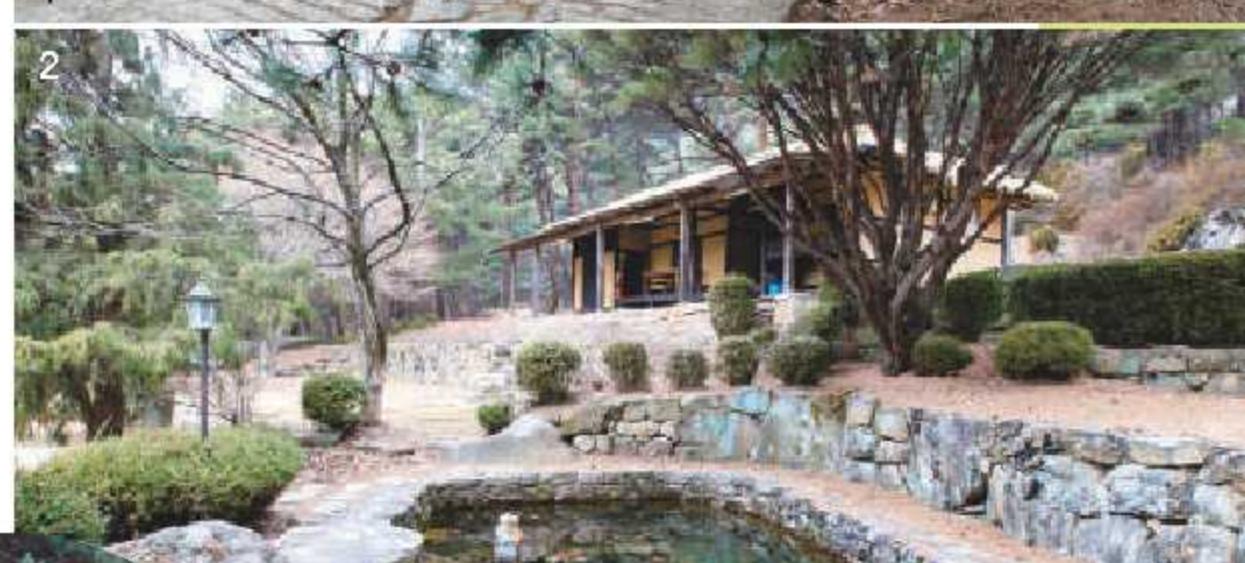
금란서원에는 연못과 소나무 정원, 장독대, 온돌 굴뚝 등이 정감 있게 어우러져 있어, 한국식 정원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 마당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소소한 즐거움이 차오르는데, 숙소 바로 뒤편에는 산길이 나 있어 다람쥐를 벗삼아 가벼운 산책을 하기에도 그만이다.

단골 여행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특히 여름 성수기엔 미리 예약해 두지 않으면 방을 잡기가 어렵다.

고사리수련관 주변에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다. 조령산 자락의 문경새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곳 100선’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명소다. 제3 관문인 조령관에서 제1 관문인 주흘관 까지 6.5킬로미터의 트레킹 코스가 만들어져 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수옥정과 수옥폭포, 내몽고민속촌이 있다. 차로 5분만 나가면 인근 수안보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고, 봄에는 수안보 벚꽃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여름에는 시원한 골짜기 바람에 더위를 잊고,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이 절경을 이루니 사시사철이 다 좋다.

여행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좋은 사람들’.

정겨운 얼굴들과 이곳에서 1박 2일 동창회를 열어도 좋을 것만 같다.



1. 고즈넉한 분위기의 금란서원 입구
2. 금란서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은당과 연못
3. 금란서원 뒤편에 있는 김옥길 전 총장 흉상
4. 김옥길 전 총장이 은퇴 후 기거하던 금란정

● 이화여자대학교 고사리수련관

주소 : 충북 괴산군 연풍면 새재로 1924

이화여대 고사리수련관

전화 : 043-833-5352

팩스 : 043-833-5451

홈페이지 : gosari.ewha.ac.kr

자가용으로 가는 길

서울 출발 : 서울 → 중부고속도로 → 호법IC →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고속도로 → 연풍IC

부산 출발 : 부산 → 대구 → 구미 → 김천JC → 중부내륙고속도로 → 상주/문경 → 연풍IC

*연풍IC에서 수안보/문경 방향으로 2km 직진 후 오거리에서 수안보/충주 방향의 3번 국도를 타고 수옥정 방향으로 우회전

대중교통으로 가는 길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오전 7시 40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출발.

동서울터미널 → (2시간 20분) → 수안보 → (시내버스 10분) → 고사리수련관

시설		비용	인원	비고
본관 숙박시설	학생동 객실	209,000원	14인	객실 수 14실 공동샤워장 및 화장실
	교수동 객실	110,000원	5인	객실 수 5실 개별화장실 및 욕실
금란서원 숙박시설	경원정	66,000원	6인	온돌방 1실 주방 및 거실 1실 욕실 및 화장실 1실 *3월~11월 운영
	인수정	55,000원	5인	온돌방 1실, 주방 1실 욕실 및 화장실 1실 *3월~11월 운영
	서은당	55,000원	5인	온돌방 2실, 대청마루 1실 주방 1실, 화장실 1실 *4월~10월 운영
	관리동	110,000원	10인	온돌방 3실 주방 및 거실 1실 욕실 및 화장실 2실 *연중 운영
부대시설	강당	숙박객	33,000원/시간	300인 빔 프로젝터, 노트북, 음향시설
		비숙박객	110,000원/시간 550,000원/일	
	실외수영장		2,200원/인	안전요원 배치
	운동장	숙박객	무료	식사주문 시 시간 단위 이용가능
		비숙박객	110,000원/시간 550,000원/일	
	캠프파이어		110,000원	
실내 및 야외식당		6,600원/식	150석	초등생 이하 5,500원

*본관 학생동 3실 이용 시 교수동 1실 할인금액 적용: 33,000원. *금란서원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6,600원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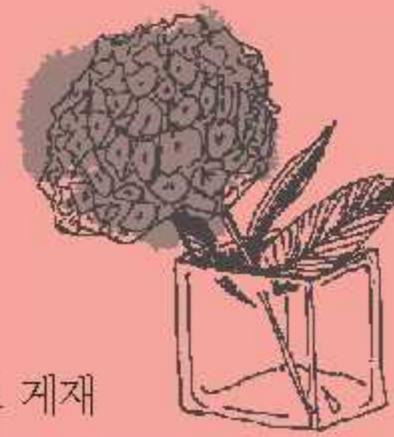
글·임은실(국문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운동과 산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운동장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신경림(간호 76) 동창 제37대 대한간호협회 회장 당선

모교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신경림 동창이 2월 21일(목) 대한간호협회 제37대 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신 동창은 사단법인 통일간호포럼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15서울세계간호사 대회 조직위원장, 대한간호협회 제32대 및 제33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배혜화(불문 77) 동창 제19대 사단법인 전국여교수연합회 회장 취임

배혜화 동창이 제19대 사단법인 전국여교수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KAI(한국예술원) 학장이며, 전주대학교 영상콘텐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배 동창은 한국불어불문학회 이사, 프랑스문화예술학회 이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윤금진(영교 80) 동창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선임

윤금진 동창이 2017년 12월 28일(목)자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자리에 올랐다. 임기는 3년이다. 윤 동창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며 상근이사, 워싱턴DC 사무소장을 등을 역임하였고, 국제교류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계승과 이용 촉진,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2004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박미정(조소 84) 동창 서울특별시박물관협의회 회장 취임

환기미술관 관장 박미정 동창이 (사)서울특별시박물관협의회 제7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사)서울특별시박물관협의회는 이화여대박물관을 비롯하여 서울시에 소재한 국공사립 및 대학 박물관미술관들의 협의회로서,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과 80여 박물관미술관들이 소속되어 있다.



나영선(사회 88) 동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임명

나영선 동창이 2017년 12월 9일(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에 임명되었다. 직업능력개발원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 임기는 3년이다. 나 동창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직업훈련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기술인력연구소 조교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허수연(체육 88) 동창

육군 준장 진급

2017년 12월 28일(목) 하수연 동창이 준장으로 진급, 육군본부 안전관리차장으로 증용되었다. 이번 진급은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전투병과에서 이룬 쾌거로, 국방부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최초로 전투병과 여군 2명을 동시에 진급시켰다”고 밝혔다.



강민희(불문 91) 동창

WHO 첫 한국인 여성 국장 선임

국제구호 전문가 강민희 동창이 WHO 첫 한국인 여성 국장이 됐다. 강 동창은 1998년 JPO (외교부가 지원하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제도)를 시작으로 약 20년간 7개의 유엔 산하 국제 기구에서 활동하며 아프가니스탄·동티모르·시리아 등에서 아동 보호 활동을 해왔다.



송상희(서양 92) 동창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7’ 수상

송상희 동창이 국립현대미술관이 주는 ‘올해의 작가상 2017’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한국 현대미술의 가능성과 비전, 대안을 보여주는 작가에게 주는 상이다.



전현경(물리 93) 동창

IT여성기업인협회장 선임

2월 8일(목) 전현경 동창이 제7대 IT여성기업인협회장에 선임되었다. 전 동창은 데이터 보호 전문 기업 (주)데이터소프트 대표이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사로, 2013년 SW산업인의 날 유공 대통령 표창, 2016년 과학기술진흥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다.



김은영(약학 96) 동창

한국엘리간 아시아 9개국 총괄 대표 승진

2017년 12월 13일(수) 글로벌 제약사 한국엘리간 사장 김은영 동창이 아시아 9개국 총괄 대표로 승진 임명되었다. 이로써 김 동창은 중국, 일본을 제외한 한국, 타이완, 태국,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9개 지사를 책임지게 되었다.



유연수(약학 18) 동창

2018년도 제69회 약사 국가시험 수석 합격

지난 2월 13일(화) 발표한 제69회 약사국가시험에서 유연수 동창이 총 350점 중 329점을 얻어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유 동창은 “4년간 이화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 김수지(간호 64) 동창

2017년 첫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고 김수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 첫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적을 남긴 과학기술인 32명을 과학기술유공자로 확정했으며, 고 김수지 교수는 유일한 여성 과학기술유공자로 뽑혔다. 고 김수지 교수는 대한민국 간호학 박사 1호로, 국내 간호 현장의 기틀을 잡았을 뿐 아니라 지역정신 보건사업 정립과 호스피스 케어 확산 교육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 및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심의

2018년도 2월 정기 임원회가 2월 8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열렸다. 이명실(영문 78) 총무가 총 42명 중 30명 참석(위임 8명, 불참 4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찬송가 13장을 부른 후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였다.

한미경(물리 88) 서기가 2017년도 12월 정기 임원회 회의록을 낭독하고 박경실(체육 78) 체대 회장의 동의와 신경희(수교 77) 사범대 회장의 재청으로 서기 보고를 통과하였다. 이어 정영출(경영 72) 회계가 12월 회계보고를 하고, 양수화(교대원 74) 교육대학원 회장의 동의와 임진(작곡 72) 음대 회장의 재청으로 통과하였다.

안건 토의로 먼저,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통과되었고,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은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안을 차례로 설명하며, 5월 동창의 날 행사의 하나인 해외 지회 오찬 간담회는 130주년이나 140주년과 같이 끝이 0으로 끝나는 해에만 개최하기로 하였음을 재차 알렸다.

최인순(의직 79) 생활환경대 회장이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과 ‘빛나는 이화인’ 상의 차이를 질문하

자,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은 모교에서 주는 상으로, 이미 업적을 쌓고 사회에 공헌한 동창에게 수여하는 상이고, ‘빛나는 이화인’ 상은 총동창회에서 이화 창립 130주년 때 제정한 상으로, 올해는 1952년 이후 출생한 동창 중 현직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직장 및 사회에서 모교의 이름을 빛낸 젊은 동창에게 수여하는 상”이라고 두 상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이어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3월 10일(토)에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신입 동창 환영사는 순서에 따라 조형예술대 회장이, 신입 동창 답사는 생활환경대 동창이 해당됨을 알렸으며, 당일 각 과에서 5명 이상의 동창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부탁하고, 명단은 미리 동창회 사무실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는 점심 제공을 생략하고 다과로 대체한다고 알렸다.

한편 총동창회에서 운영하는 ‘황화방’의 법적 운영자는 당해년도 총동창회장이 자동으로 맡게 되며, 황화방의 영리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이로 인한 개인 세금 증가분은 총동창회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만 세무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더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올해의 이화인’ 추대 동창과 ‘빛나는 이화인’ 후보 동창 명단 제출 독려

2018년 3월 8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소회 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3월 정기 임원회가 열렸다. 이명실 총무가 출석 26명, 위임 13명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하였고, 김영주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친송가 147장을 부른 후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로 2018년 3월 정기 임원회를 시작하였다.

이어 한미경 서기가 낭독한 2월 정기 임원회 회의록이 통과되었고, 정영출 회계가 보고한 2월 분회계 보고도 각각 동의와 재청으로 통과되었다.

안건 토의로 들어가, 정영출 회계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하고 최인순 생활환경대 회장의 동의와 임진 음대 회장의 재청으로 결산안이 통과되었다.

토요일 열리는 정기총회 준비가 지난달에 이어 안건으로 올랐고,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여러 가지 사정상 점심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 대신 다과(떡, 과자, 차)로 대체했음”을 다시 설명하였다. 또한 “각 대학의 참석자 명단을 오늘까지 동창회 사

무실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임원들은 행사 당일 12시까지 모여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어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4월 26일(목) 오후 12시에 각 과(학부),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가 열린다고 알리고, 각 과(학부) 및 대학(원) 회장들은 이날까지 ‘올해의 이화인’에 추대되는 동창, ‘빛나는 이화인’ 상 후보 동창의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가을 대바자회 일정을 9월 13일(목) 전후로 결정한다고 알렸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5월 15일(화) 오후 2시에 ‘감사찬양예배’를 드린다고 안내한 뒤, “이날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여 대강당을 모두 채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동창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어려운 이화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도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기타 광고로,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동창의 날 행사 합창제에 참여하는 대학은 선착순으로 8팀을 접수받는다고 알리고, 참가를 원하는 대학은 빠르게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교부 소식

성령의 열기가 뜨겁던 겨울 수련회

2018년을 여는 겨울 수련회가 1월 16일(화) 모교 다락방전도협회 전교실에서 열렸다.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4시까지의 일일 수련회에 27명의 선교부원이 참가하여 추운 겨울임에도 성령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정민영 (성경번역선교회 세계 부총재 역임) 선교사는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고전1:18-25, 이사야53

장, 빌3:18-20, 히12의 말씀을 읽고, 복음의 핵심십자가의 도를 주제로 강의했다.

선교사 이재진(영문 78) 동창은 재학 시 파키스탄 선교사 전재옥(영문 60) 동창을 대강당 채플에서 만난 인연으로 자연스레 선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남편 정민영 선교사에게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했다는

훈훈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서 페루에서 선교하는 오주엽(의학 81, 제11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동창의 사역 보고가 있었고, 온라인 진료와 초음파 기기 구입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화기

독교연합 대표 안현정(영문 14 입학) 재학생의 새내기 수련회를 위한 후원과 기도 요청을 듣고 함께 기도했으며, 2018년 선교부의 계획을 세우는 등 하나님께서 선교부를 위해 준비한 은혜의 잔치에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였다.

이화 가족 감사찬양예배

이화여 모여라, 이화여 기도하자

시간 : 2018년 5월 15일(화) 오후 2시 장소 : 모교 대강당

■ 함께 기도합시다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이화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화의 회복을 위해 남겨 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싸매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세계 열방 앞에 사명 다하는 이화가 되게 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 감사찬양예배에 이화동창을 모십니다

이화의 고난을 심각하게 여기는 동창들과 이화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을 모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을 모아 재학 시절 드렸던 예배의 장소에 모입니다. 동창들이나 이화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레미야33:2절-9절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선교부



“선생님은 늘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셨죠”



박보희 전 모교 교수

1929년 황해도 출생. 1951년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토론토 대학교 사회사업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1957년 모교에 재직하면서 기독교학과와 사회사업학과를 분리, 국내 최초로 전문 사회사업 교육의 티대를 마련했다. ‘이화 10년 발전 교수 장학금’의 첫 수혜자로 컬럼비아 대학교 사회사업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1973년), 모교에 복직하여 1984년 까지 사회정책 분야를 강의했다. ESCAP 사회개발정책 및 계획부장, UNDP·UNICEF·WB의 고문/자문위원을 역임했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아동단체 협의회 창립고문 및 회장, 한국여성개발원 고문, 한국 사회정보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국민훈장 석류장, 제2회 비주미 여성대상, 용신봉사상, 사회복지발전 특별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함께한 제자들(졸업연도 순)

김선희(69) 전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 한인영(72) 모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서울시 복지재단 이사장, 현 사복과 동창회장 / 박현경(75) 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서명선(76)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 이윤상(86) 나눔인터내셔널 대표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반가운 봄비가 내리던 날, 제자들이 혜화동의 박보희 교수 댁으로 삼삼오오 찾아들었다. 얼마 전 박 교수가 폐렴에 걸려 만남이 연기되었던 터라 제자들은 박 교수의 건강을 걱정하며 안부를 묻는 것으로 첫인사를 나눴다. 다행히 박 교수는 구순의 나이에도 이번 제자들과의 만남을 위해 컨디션을 잘 조절하고 유지했다고 했다. 다들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제자들인지라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시간을 내어 한자리에 모여 앉고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 교수는 담소 중에도 노익장을 과시하듯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박 교수 댁에서 마련해 준 점심식사 자리에서도 스승과 제자들은 사회복지계의 미래는 어떨지, 인공지능시대 인류가 선택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등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인영 __ 작년이 사회복지학과 창립 70주년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화에서 사회사업학과(1995년 사회복지학과로 개명)가 개설된 것 이니까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학과 1기 졸업생이시지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복지학 박사 제1호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만남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박보희 난 그런 감투에는 관심이 없어(웃음). 내가 이화에서 전임강사를 시작할 때(1957년) ‘개별사회사업 방법론(Case Work)’부터 사회정책 분야까지 다 가르쳤는데, 꽤 오랫동안 이화나 다른 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사례연구 중심의 개별 사회사업 분야에만 비중을 두었어. 서울대학의 경우는 일찌감치 사회정책을 가르친 모양인데…

김선희 맞아요, 저희 학부 때는 사회정책 관련 과목은 별로 없었어요.

박보희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좀 성급한 데가 있었어. 사례를 하나씩 다루다 보니까 끝이 없겠더라고. 가족의 문제도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민 끝에 1962년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사회정책’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

김선희 선생님은 임상 경험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미국 유학 시절에 병원에서 암환자와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상담하시고, 뉴욕의 가족상담기구에서 패밀리 카운슬링도 하시고요.

박보희 그때 공부하는 한편으로 여러 가지 임상경험을 쌓고 있었어. 그렇게 8~9년을 멋대로 공부하고 일하며 이화에서는 장기 휴직 상태로 있다가 김활란 선생님을 만난 거야. 선생님이 보시기에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있는 내 꼴이 안 타까웠던 모양이야. 이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돌아가되 박사학위를 따서 가라고 하셨지. 그 후 3년 만에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위를 따 가지고 돌아왔지.

한인영 선생님께서 전란 중에 부산에서 만드신 ‘우리집’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박보희 대학 4학년에 올라가자마자 전쟁이 터졌지. 부산으로 피난 가 있을 때 길가의 부랑아들

을 보게 되었는데 다들 전쟁고아들이었어. 그 애들이 아무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버려져서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 마음 아프더라고. 그래서 동료 한 사람과 함께 몇 명만이라도 우리 집에 데려가서 돌봐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5명을 데려왔어. 그것이 ‘우리집’의 시작이었지.

박현경 선생님의 기본 마인드나 가치관, 인간에 대한 관심, 진정성 등을 보면 선생님은 원래부터 바탕이 단단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집’을 시작하신 것도 아동들에 대한 관심, 나아가 사회와 인류에 대한 관심이 계기가 되었던 것 아닌가요?

박보희 내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했다거나 돈독한 신앙심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했던 건 아니야. 언제나 눈앞에 문제가 보이면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매달렸지. 그게 나의 성향이고.

김선희 “산이 있어서 올라갔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군요.

박보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사업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자선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지. 나는 그게 정말 싫었어. 그래서 나의 연구활동은 사회와 경제발전을 어떻게 하면 융합할 수 있을까에 집중했지.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고나 이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로 피난 갔던 셈이지. 당시에 시국이 어수선하고 학생운동도 굉장히 심했잖아. 교수로 제대로 연구하기도 어려웠고. 9년 동안 ESCAP에 있으면서 사회개발을 위한 각 나라 간의 기술협력 사업부터 장관회의 준비자료 작성까지 여러 업무를 했지. 돌아보면 모든 일은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러했던 거지. 일복도 많았지만 인복도 있었고. 자네들이



왼쪽부터 이윤상·김선희 동창, 박보희 교수, 서명선·박현경·한인영 동창

본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한데?

박현경 1978년에 직장 다니다가 대학원에 와서 선생님의 특강을 듣게 되었어요. 선생님의 강의는 기존의 수업방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지식을 전해 주었다면 선생님은 명제 하나를 던져 주시고는 그 생각을 쫓아가야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셨어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죠.

김선희 제가 조교로 있을 때 조교와 교수의 관계로 선생님을 뵈었죠. 선생님은 다정하실 때는 한없이 다정하시고 농담도 잘하셨어요. 선생님이 받아 주시니까 저도 신이 나서 수다를 떨곤 했죠. 그런데 불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정말 단호하셨어요. 이런 성향이 선생님이 계속 활동하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서명선 학부 때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서로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은 우리를 답답해 하시고 우리는 선생님 강의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웃음) 나중에

는 점점 재미있어졌고 이런 식의 접근이 문제 해결에 훨씬 효과적이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겼죠. 선생님은 은퇴한 후에도 쉬지 않고 계속 공부하시고 얼마 전에도 「사회정책 4.0을 향하여」라는 논문을 쓰셨잖아요. 선생님은 저희가 쫓아가기 힘들 만큼 정말 멋있는 여성이신데 정작 선생님은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여성적인 시각은 거의 없어요.

한인영 아니야, 얼마나 여성스러우신데. 오재경(박 교수의 부군, 전 문화공보부 장관·동아일보 사장, 2012년 별세) 박사님이 들으시면 ‘이거 뭔 소리야’ 하시겠어요.(일동 웃음)

이윤상 선생님께서 유니세프에서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국제협약’ 후속 프로젝트를 맡으셨을 때 제가 1년 정도 선생님 옆에서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성품이 따뜻하면서도 일에 관한 한 정말 정확하셨어요. 그때 “이게 바로 ○○(Community Organization)야”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가 현장에서의 조직만이 아니라 정

책적으로 각 분야를 연결시키는 작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후 민간단체 대표로서 북한과 개도국 현장에서 일할 때 선생님과 함께 일했던 경험에 큰 힘이 되었어요.

박보희 최근에는 사회복지학과에서 참신한 과목도 개설되는 것 같던데, 앞으로 사회복지학과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한인영 사회복지학과의 전국적인 이슈는 학생들의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위해 그 시험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 이죠. 그런 필수과목을 우선적으로 채우다 보면 나머지 흥미롭고 미래지향적인 과목을 제안하려고 해도 제약이 따르죠.

박보희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몇몇 우수한 개인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자세가 여전히 보수적이고, 더 큰 문제는 그마저도 정치화된다는 것인지. 정부 고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처럼 이용되잖아.

한인영 다행히 최근에는 참여연대 안의 사회복지위원회에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서 기존의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박보희 사회복지계가 그동안 사회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정부 의존적인 것이 아쉬워. 정부의 지원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활성화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잖아. 사회현실이라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이거든. 역동적으로 변하는 현실에 따라 대응책도 함께 변할 수 있어야 해. 정부에서 시키는 프로젝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새롭게 시도해서 이것을 통해 어떤 가치가 인정되면 그것이 제도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

서명선 제가 부처에 들어가서 일해 보니 아무리 개혁적인 성향의 장관이 와도 일선 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하더라고요. 뭔가 바꿔 보려고 해도 그들이 따르던 법 제도와 하위 규정들의 틀을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박보희 그 틀을 깬다는 것이 참 어렵지. 지금은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쓰느냐, 그 선택과 가치판단이 중요한 사안이 되었어.

서명선 그런데 선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나 정신세계는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박보희 맞아, 바로 그게 문제야. 어느 시대나 젊은 사람이 있으면 얻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평등하게 이득을 보지는 못하거든. 그러나 젊은 것에 대한 보상이 사회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고, 한편으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정착되어야 해. 그런 의미에서 대학의 의무는 지식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선택, 그 선택이 무엇을 향하는가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지.

김선희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는 ‘프로토 타입 인간’ ‘하이브리드 인간’ ‘완전한 인공지능 인간’들과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목표는 인류의 행복에 공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는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의 미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보희 이화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개별 사회사업 교육에 비중을 많이 뒀는데 효과를 좀 봤는지 모르겠어. 지금이 이화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해.

한인영 사회복지학과와 관련해 모든 면에서 이

화가 전국 최초였죠. 이화 출신 졸업생들이 전국 대학에 교수로 진출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교육의 효과가 괜찮다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부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더 앞서가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이나 교육방침에 변화가 있어야 하거든요.

박보희 그런 의미에서 이대에서 ‘사회적 경제’ 협동과정을 만든 것도 괜찮은 시도라고 생각해.

한인영 네. 작년에 사회적 경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만들었죠. 사회복지학과를 비롯해 8개 전공이 연계한 과정이에요.

박보희 앞으로는 법과 사회복지를 융합해서 교육할 수 있는 과정이 생기면 좋겠고, 또 정책적으로 시민사회에서도 사회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복합적인 교육과정이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흥보 전략에도 힘써야 해.

한인영 선생님은 아무튼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과 판단을 하신 분이에요. 선생님의 교육방법이나 교육방향은 늘 새로웠죠. 또 선생님은 국제화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학문적, 정책적으로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계기를 마련하셨잖아요. 끊임없이 연구와 실천에 영향을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오늘날까지 지속하고 계시다는 것. 그런 면이 저희가 살아가면서 본받고 싶은 모습이죠.

박보희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감사하네. 나에게 한(恨)이 있다면 ‘왜 인류가 이렇게 밖에 못 살까? 왜 아직도 병과 전쟁,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야 할까?’ 하는 것이야.

김선희 선생님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2004년이었어요. 지금은 그 이슈가 사

회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고요.

박현경 맞아요. 선생님은 학문이나 실천 면에서 늘 앞서가는 분이셨어요.

한인영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분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도 59세라는 나이에 결혼을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일동 웃음) 당시로서는 그런 행보가 이미 한 세대 이상 앞서가신 분이어서 가능했죠. 뒤늦게 나마 오 박사님 같은 좋은 인연을 만나 이후 20여 년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꾸려가셨잖아요. 근데 결혼을 늦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선희 ‘나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셨던 것 아닐까요?(웃음)

박보희 뉴욕에 있는 동안에는 나만을 위해서 문화적이고 학술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느라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 오재경 박사님도 그 전까지는 남자로서 생각해본 적은 없었는데, 평소에 그 양반 하는 일에 호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하루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덮어놓고 나한테 반지를 주면서 프러포즈를 하시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랐지.

김선희 정말 당황하셨겠어요. 치밀한 작전이었네요.(웃음)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박보희 결론적으로는 참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그분이 나한테 양보 많이 하셨지. 여러분 덕에 오늘 많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만나서 흐뭇하고, 나를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

제자들 오히려 자주 인사 못 드려서 저희가 죄송할 따름이죠.

진행 및 정리·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모교는 2월 26일(월) 오후 2시 교내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2,330명, 석사 1,225명, 박사 138명 등 총 3,69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위수여식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교무위원 등 주요 내빈과 졸업생 및 가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모교 학위수여식 최초의 외부 축사자로 특별한 동창이 참석했다. 주인공은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선(유교 01) 동창으로, 저서 『지선아 사랑해』로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이 동창은 화상으로 인한 절망을 딛고 삶의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이자 사회복지학 박사 겸 교수로서 졸업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자리했다.

김혜숙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졸업을 맞이한 이화의 자랑스러운 동창들에

게 축하와 치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난과 고통 없는 영웅이 없듯 고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시킨 선배를 통해 삶에 대한 용기와 사랑을 찾길 바란다”고 이지선 동창을 소개했다.

사고 이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지선 동창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게 될 여러분에게 앞으로 슬픔과 좌절, 역경들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잊거나 놓치지 말 것”을 조언했다. 또한 “그동안 살아오며 인생 곳곳에서 도움을 주는 이화인들이 있었다”며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응원할 테니 힘들



때마다 꺼내 보며 여러분 역시 자랑스러운 이화의 선배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졸업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졸업생 중에는 전신 화상의 아픔을 이겨내고 지난 4년간 학업에 매진해 학사모를 쓰게 된 최려나(Cui Lina) 동창이 포함됐다. 중국 국적인 최 동창은 11세 때 불의의 사고로 전신 95%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40여 차례의 수술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공부한 끝에 2014년 모교 영어 영문학전공에 입학하여 화제가 됐다. “이화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되돌려 주는 삶을 살고 싶다”는 최려나 동창은 모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할 예정이다. 이번 졸업식에는 같은 이화의 울타리 안에서 화마를 딛고 삶의 희망을 찾아온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학부 졸업생 중 최연소자는 만 20세이며 최고령

자는 만 53세이다. 수석 졸업자는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등 각 단과대학별로 1명씩 총 11명이 선정됐으며, 귀순 북한동포 4명과 재입학생 8명, 자체 장애를 가진 재학생 1명도 영광의 학사모를 쓰게 됐다. 또한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장학생 8명을 포함해 과테말라, 르완다, 이탈리아, 카메룬, 타이완, 탄자니아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학생 총 101명(학사 43명, 석·박사 58명)도 이번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생들은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모국으로 돌아가 모교에서 쌓은 교육 역량을 널리 발휘할 예정이다.

EGPP는 모교가 세계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 2006년 시작한 한국 최초의 개발도상국 여성인재 전액 장학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모교는 39개국 242명의 학생을 선발해 14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2018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환영 행사 개최

모교는 2월 23일(금) 오전 10시 교내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입학식을 갖고 3,393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입학식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총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와 신입생, 가족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새내기 이화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김혜숙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이화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여자대학으로서 한국의 근대화 역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적 여성 지성 공동체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이화의 역사는 곧 한국 여성의 역사이며 이화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있는 신

입생 여러분이 가장 큰 자산이자 자지대”라고 말했다. 이어 한 세기가 넘도록 이화가 지켜온 가치로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 △임파워먼트 정신 △여성 공동체의 사회적 소명에 대한 윤리 의식 등을 강조하며 “이화에 들어온 순간 여러분은 이화 공동체의 가치와 여성 유대가 갖는 의미를 배우고 실패를 두려워 말고 지적 탐색과 실험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입생 선서는 사범대학 최아영 씨와 사회과학대학 마라토바 메리안나(Maratova Merianna, 키르



기스스탄) 씨가 맡았다. 최아영 씨는 "이화에서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설렌다"며 "선배들의 조언처럼 편하게, 급하게 가려 하지 않고 부딪히고 도전하며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라토바 메리안나 씨는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이 4개국 출신의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장학생 일곱 명 중 한 명이다.

입학식 직후에는 신입생과 학부모를 환영하기 위한 '이화사랑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대강당에서는 신입생을 위한 이화사랑 프로그램 'Welcome to Ewha' 가 마련됐다. SBS 출신 개그우먼 임라라(체육 15) 동창의 사회로 양효진(경제 14입학), 이지은(사회 16입학), 김시완(융합콘텐츠학 16입학), 송유진(뇌인지과학 16입학) 씨 등 재학생 게스트들이 생생한 캠퍼스 라이프 이야기와 대학 생활 노하우를 들려주었다.

또한 임정아(커미부 94, JTBC PD) 동창이 졸업생 선배로서 깜짝 방문해 대학에서 꿈을 찾는 방

법, 성공적인 사회진출 비결 등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으며 이외에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봉사단, 학생 기자단과 같은 교내외 활동, 멘토링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같은 시간, ECC 삼성홀에서는 학부모와 가족 700여 명을 초청한 신입생 학부모 이화사랑 프로그램 'Welcome to the Ewha Family' 가 진행됐다. 오랜 수험기간 동안 함께 고생한 부모님들께 전하는 신입생 자녀들의 감사 인사 영상으로 깊은 감동을 더했다.

김혜숙 총장은 이화 가족의 일원이 됨을 환영하는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최성희 학생처장은 모교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학생 활동 프로그램 및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행사는 주요 보직자와 학부모들과의 현장 질의 응답으로 마무리되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화에 바라는 점, 궁금한 점 등을 자유롭게 논하며 신입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고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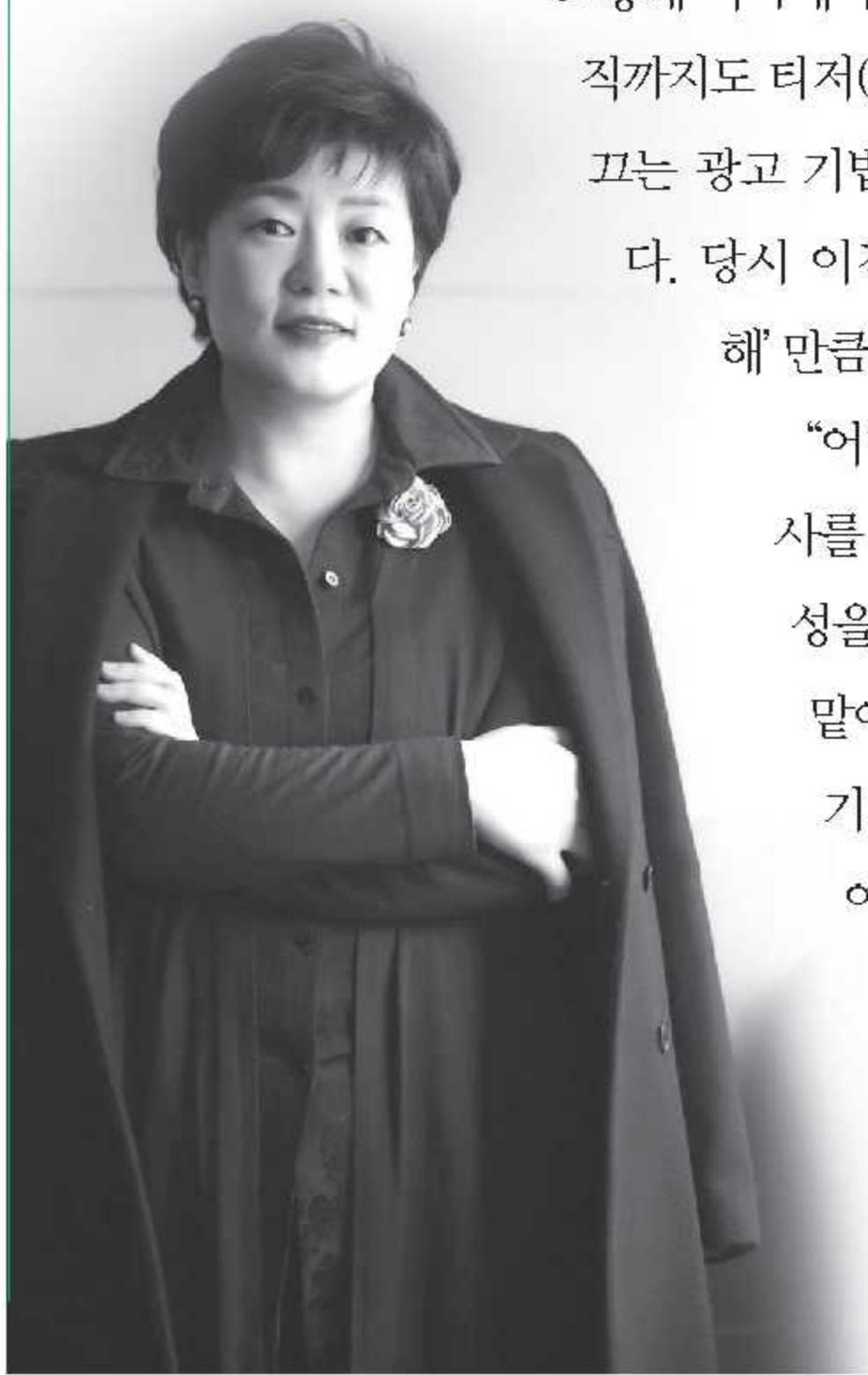
“여성이 건강하면 세상이 좋아지고, 직원이 행복하면 회사가 성장해요”

이진민 동창은 1986년 모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했다. ‘한국 지형에 강하다, 애니콜’ ‘나는 나 톰보이’ 등이 그가 쓴 카피이다. 금강기획, 제일기획에서 카피라이터로 15년 일하는 동안 최 연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결혼 후에도 사직하지 않은 최초의 정규직 여직원이 되었다. 여성 노조위원장도 했다. 여성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치열했다. 국내외 내로라 하는 광고대상을 여럿, 영국 런던국제광고제에서는 금사자상을 받았다. 아시아 최초의 수상. 한 마디로 잘 나가는 광고쟁이였다. 2000년 서울 곳곳에 ‘선영아 사랑해’라고 적힌 종이 가나붙었다. 누군가 사랑을 고백한 모양이라고들 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온 국민이 ‘영미’를 외치듯 누구나 ‘선영이’를 알았다. 소설가 김연수는 이 카피를 패러디하여 『사랑 이라니, 선영아』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다. 여성 포털 사이트 ‘마이클럽닷컴’은 그렇게 어디에나 있을 법한 ‘선영’ 이를 내세우며 획기적으로 등장했다. 아직까지도 티저(회사나 상품 이름 등 상품 관련 정보를 밝히지 않고 주목을 끄는 광고 기법) 광고계의 전설인 이 마케팅 이벤트를 그가 진두지휘했다. 당시 이진민 동창은 마이클럽닷컴의 부사장이었다. ‘선영아 사랑해’ 만큼이나 주목받은 이직이었다.

“어릴 때부터 여성을 위해 일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광고회사를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지요. 광고회사는 성차별 없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거든요. 마이클럽의 경영을 맡아달라 요청받았을 때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성의 이야기가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으니까. 지금도 제 꿈은 여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현재 이진민 동창은 아이소이(isoi) 대표 이사다. 아이소이는 유해 성분에 반대하는 100% 천연 기능성 화장품으로 2008년 론칭한 국내 화장품 브랜드.

“아이소이(isoi)는 ‘I’m SO Intelligent’의 약자예요. 단순히 겉모습이 화려한 화장품을 찾기보다 화장품의 성



분을 보고 자신의 피부에 정말 좋은 것을 바를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 출발했어요. 진짜를 만들면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했지요. 여자는 똑똑하잖아요.”

‘100% 천연 화장품’ 만들기가 그리 만만한 일이었을까. 기존 화장품에는 발림성을 위해, 발색을 좋게 하려고, 향을 내려고, 보존을 위해 또 그렇게 화학 물질들이 들어간다. 아이소이는 유해 성분, 화학 성분을 일절 배제한다. 천연 화장품을 지향하는 브랜드가 시중에 있기는 해도 100% 천연 화장품은 거의 없다. 이진민 동창조차 자신이 천연 화장품을 만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제 피부가 민감했어요. 계절이 바뀔 때면 비누를 쓰지 못할 정도라 입술과 눈화장만 하고 다니는데, ‘선영아 사랑해’ 성공 이후 고쳐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랬다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크게 고생을 했어요. 독일의 유기농 천연 화장품을 만난 후에 겨우 진정됐고, 그때 화장품이 건강과 직결돼 있단 걸 깨닫았지요.” 외모 치장의 대명사 화장품이 그렇게 건강의 지표로 변신했다. ‘피부엔 최대한 이롭게, 몸과 마음까지 건강하게 하는 아름다움’을 아이소이는 목표로 한다.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니까요. 크게 두 타입의 여성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잘한다’는 말에 ‘너무 행복해요’라고 답하는 쪽이 남성화된 여성이라면, 여성화된 여성은 ‘여성이라서 잘해요’라고 하지요. 전자도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건 후자가 아닐까요. 여성이라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는 온화, 배려, 돌봄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성이라고 믿는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돌봄의 자연 같은 여성성이다. 우리 주변엔 이런 여성성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진민 동창은 요즘 지역적으로는 청소년 쉼터, 국제적으로는 유치원 건립에 기부로 동참하고 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부모와 기성 세대의 압박이 크지요. 가출 청소년이 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가출이겠어요? 탈출이지요.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의 삶을 우리가 지켜 주어야 해요. 이화인이 나서서 감싸고 보듬는다면 크게 성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진민 동창은 이화만큼 여권 신장에 기여한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

“‘나 이대 나온 여자’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특권 의식이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저는 이 말이 여성성을 지닌 리더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의지의 표현으로 사용되길 원해요. ‘난 잘난 여자야. 그래서 일도 잘해. 앞서서 나갈 거야. 세상에 좋은 가치를 뿐만 거야. 선한 영향을 끼칠 거야….’”



아이소이 뷰티클래스



파트너십 세리머니

광고에서 인터넷 그리고 화장품 업계로의 행보는 여기저기 뻗어 보는 가지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 만들어낸 일관된 줄기 같은 길이었던 거다.

“화학 성분이 몸 안에 축적되어 건강을 해친다는 ‘바디버든’에 대한 각성이 커지고, 화장품의 성분을 체크해 가며 구매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졌어요. 천연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해받지 못했거든요. 제품 가능성, 사업적 전망도 밝게 보는 이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확실히 고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이진민 동창은 스스로 세상을 바꿀 만한 엄청난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꾸준히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믿는다. 아니 그렇게 매일 다짐한다. 그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직원이 행복하지 않은 회사가 제품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린 무조건 놀아야 해요. 수요일 빼고는 필라테스를 해요. 2주에 한 번씩은 댄스, 커피, 와인 같은 걸 배우고요. MBA 과정도 수강하고요. 모두 사내에서 근무 시간에 합니다. 수요일 6시엔 무조건 집에 가야 하고, 3개월에 한 번은 여행을 해요. 그냥 가나요? 제대로 놀 준비를 하고 가야지요. 저와 임원은 사내 프로모션 전담팀이에요. 해외 출장을 가면 하루 볼일 보고 나머지 며칠은 놀다 오도록 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회사 돈으로 여행하는 거 아닌가요?”

이진민 동창은 한술 더 뜈다. 직원의 표정을 보고 그의 고민을 읽어내는 것이 사장의 일이란다.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사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 고민일 것 같으면 우선 그 일을 해결하라고 해요. 가족이 아프고 힘든데, 직원이 행복할 수 있나요? 직원 한 사람 잠깐 자리 비운다고 업무가 안 돌아가면 그게 회사인가요? 서로 그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업무가 맞지 않아 고민인 직원에겐 부서를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일로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어요. 사람이 힘든 건 아니잖아요.”

원래 기업 경영이라는 게, 직장 생활이 이리도 쉬운 것이었던가.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거 실화냐’의 심정이 되었다.

“물론 회사와 직원이 원원할 때도 있고, 회사에 손실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고정된 게 아니에요. 당장의 손실이 나중에 더 좋은 수로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안 됐을 땐 잊는 것이 편합니다. 뭐 어때요. 잘될 건데요. 세상에 이런 화장품 없다니까요. 우리 회사, 어차피 잘될 거예요.”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 사내 북카페로 한 직원이 들어온다. 커피머신 앞의 부스스한 모습에서 밤샘의 기운이 엿보인다. 사장인 이진민 동창이 직원에게 다짜고짜 묻는다.



사무실에 붙은 아기자기한 메모

“우리 회사 어떨 것 같으니?” “1등이요.” “우리 회사 야근 없다고 했는데, 야근해서 어쩌니? 너희 쪽으로 일이 밀렸다지?” “하면 돼요. 그래도 끝이 보여요.”

사장과 직원의 혼한 대사 톤은 아닌 듯했다.

“저도 모르게 엄마 마음으로 직원을 살피게 돼요. 살쪘다고 고민하는 한 남자 직원한테 팬찮다고 하니까 다들 살 빼라고 난리인데 팬찮다고 하는 사람은 사장님하고 우리 엄마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런 사장입니다. 엄마급.”

어느 회사의 ‘가족주의’는 노동 착취의 기술이라는데, CEO인 이진민 동창의 경영 마인드는 ‘엄마급’이다. 돌봄의 여성성은 이진민 동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의 하나이다.

“회사를 사장 한 사람이나 직원들이 키우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회가 키워 주는 거지요. 소비자가 물건을 사주니까 기업이 크는 거예요. 사회에 빚진 자이니 사회 공헌은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내가 번 것을 사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를 통로로 벌었으니 사회가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사장은 직원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고, 직원은 소비자를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이진민 동창이 직접 쓴 카피로 꾸민 계단



있는 돈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을 내는 건, 부족한 게 있기 때문이다. 남을 도울 돈. 지금은 ‘십일조’, ‘십의 이조’, ‘십의 삼조’를 하고 있지만, 그의 목표는 ‘십의 오조’이다.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큰 성공이 내게 그만큼의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엄청난 성공에의 유혹도 끊임없이 있고 흔들리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불법이나 부정한 방법이라면 저는 ‘No’입니다. 착한 돈을 벌고 싶어요.”

그의 아들은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한단다. ‘엄마 회사가 타락하지 않는 깨끗한 회사로 크게 해주세요.’

“자식이 무서운 거예요. 매일 이런 기도를 하는 자식을 두고 내가 비틀거릴 순 없잖아요. 큰 성공만을 재촉해 가진 않을 거예요. 늦더라도 제대로. 무슨 문제겠어요. 어차피 잘될 건데….”

‘어차피 잘될 거라니’, 묘하게 중독된다. 이 수퍼 울트라급 초긍정의 뒷심은 무얼까. 100% 천연 화장품이라는 ‘진짜’에 대한 자부심인 건 두말할 것도 없겠다. 하나의 화장품 브랜드이지만, 이진민 동창에게 아이소이는 ‘여성이 건강한 세상. 직원이 행복한 회사’의 다른 이름이요, ‘어차피 잘될 거니까’는 주술이 아닐까. 진짜로 가자는!

글·박종분(중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많은 도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모팟 신학교 이야기 신학교가 있는 ‘키자베’는 마사이말로 ‘바람 부는 곳’이라는 뜻이다.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와 다시 맞이한 이 밤바람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는 이 땅의 간절한 기도 소리로 들려온다.

9월 신입생들을 모집하는 중, 케냐 남동부 쪽의 미전도 종족인 오르마 족의 한 청년이 신입생으로 오게 되었다. 이 청년을 3~4년 동안 잘 훈련하여 오르마 족을 위해 일할 첫 현지 영적 지도자로 키우는 것이 우리들의 사역이다. 이들을 통해 영생을 맛보게 될 수많은 영혼들이 눈에 보이는 듯하여 신이 난다. 이번 학기 정 선교사와 김 선교사는 졸업 후 실제 사역에 필요한 말씀으로 신학생들을 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자 다양한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들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다.

미전도 종족 선교 기도모임 졸업생 조지 이호고가 한 선교단체의 간사로 신학교 내에서 함께 사역하게 되어 그를 주축으로 선교 지망생들의 기도 모임이 다시 활성화 되었다. 새로 합류한 1학년 조셉은 여러 차례 미전도 종족에서의 단기 선교의 경험을 가진 청년으로,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경험이 부족한 멤버들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모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인근의

선교병원 부속 간호대학생 중 선교에 관심이 있는 2명의 자매들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미전도 종족 지역 의료 사역의 필요에 구체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마침 간호선교사로서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사역하는 사례들이 있어 귀한 연결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한다.

1월 중 키자베 병원 선교팀에서는 병원을 찾는 무슬림 환자의 전도를 위한 집중 훈련 프로그램에 기도 모임 팀원들이 참여하여 훈련을 받았다. 이 병원은 소말리아 환자들과 가족들이 1년에 3만 명이 다녀가는 상황이라 말씀으로 잘 훈련받는 모팟의 신학생들에게 큰 도전의 장이 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찬양팀의 워십과 전도, 무슬림 환자들과의 상담을 통한 관계 전도 등 여러 모양으로 사역하고 있다. 한편 7월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케냐 무슬림 지역인 해안 지대나 동부 포콧의 미전도 종족 지역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구체적



인 일정과 준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슬럼 사역 이야기 성탄절에는 고향을 찾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슬럼의 130가구에 밀가루와 기름을 나누며 위로하고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여학생 성경 캠프에 참가했던 한 여학생이 임신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 마음이 몹시 아팠다. 전기가 전혀 없는 이곳은 밤이 되면 여자들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강간을 당하기도 한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활동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로 인해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토지에 얹힌 여러 가지 소문들로 인해 요즘 들어 잦은 방화 사건들이 일어나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 다행히 인명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집과 함께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된 이들은 종이 박스와 비닐, 나무 막대기 등을 엮어 누추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낸다. 마을의 중앙 공터에 태양열을 이용한 보안등을 설치해 줄 계획으로 기도 중이다. 쉽게 파괴되거나 도둑맞지 않을 만큼의 높이와 견고성을 지닌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기대한다.

신학교 동네의 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찬양 집회를 열게 되어 이곳에 슬럼의 청년들을 초청하여 참여하게 한 후 첫 모임을 신학교에서 가졌다. 이 모임이 믿음의 청년들을 배출하는 귀한 모임이 되길 기도한다. 아울러 1학년 학생 중 투르카나에서 온 신학생의 키가 너무 커서 현재 사용하는 선교사의 자동차로 사역지로 오가는 일이 더욱 어려워져 차량 구입 문제가 시급해졌다. 차량 후원금이 하루속히 채워져서 사역을 위한 봉고 차량을 구입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마더와이즈 회복 이야기 지난해 12월 말 슬럼의 여인들 19명을 신학교로 초청하며 마더와이즈 회복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물도 전기도 제대로 된 집도 없는 이들은 신학교에서의 3일이 천국 생활과도 같았다고 고백했다. 지난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말씀 훈련을 하기는 했어도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에 많이 치중되어 이들만의 집중적인 말씀 훈련의 필요를 느꼈고 캄바 부족어로 소통의 어려움도 있었던 차에 마더와이즈 회복의 말씀을 부족어로 단순화시켜 핵심을 강의하였다.

슬럼에서의 삶은 위험한 일도 많고, 사탄의 영적 공격도 심하고 삶의 질고가 너무 커서 우왕좌왕하는 이들에게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이 모임의 여인들이 말씀에 확고히 서서 많은 도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고 마더와이즈 모임으로 회복되는 때가 오길 기대하며 기도한다.

스화힐리어 핵심 성경 구절 소책자『회복』이 제작되어 이들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돋게 되었다. 이어서 부족 언어로 된 성경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으며 기도한다.

글·김선정(영문 88)

♥ 기도해 주세요 ♥

1. 모팟의 신학생들이 바르게 훈련받고 부르신 곳으로 분명히 인도함 받도록
2. 슬럼의 영혼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한 필요들이 풍성히 채워지기를
3. 두 선교사의 영육의 강건함과 김 선교사의 녹내장 치료에 인도하심을 위해

공동체 이화를 지긋이 묵묵히 품다

이화 교정은 봄이다! 연두가 내밀기 시작하면 개나리, 벚꽃, 영산홍 들이 기다렸다는 듯 성큼 걸음을 내딛는다. 그중에 으뜸은 대강당 옆 목련.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노래가 흥얼거려지는 4월이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대강당 옆 목련은 이화인의 공통 심상이 아닐까. 그런데 말이다. 무려 몇십 년 동안 쭉 마음에 담아온 그 꽃이 하얀 목련이 아니란다. 학교 공식 블로그 ‘이화여대 대강당 옆 자목련의 숨겨진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다.

‘이화여전이었던 시절 1936년부터 1941년까지 봉직했던 박은혜 교수가 영국에서 조그만 화분에 심어 키우던 자목련 묘목을 가져와 애지중지 키웠다. 1963년 돌아가신 뒤로 미국으로 이민가게 된 자녀가 어머니와 이화의 인연을 기억하며 학교에 기증하였고, 1971년 이래 40년이 넘게 지금의 자리에서 피고지고 있다.’

기억이란 건 주관적으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서사. 기억은 불완전하고 취약하지만, 기억에 의지한 감정은 생생하고 강렬하다. 그래서 알아봤다. 이대 대강당에 대해 그대가, 우리 동창들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며, 과연 그러한가?

주요 교내외 행사가 치러지는 공간

이대에는 ‘이대오르기(‘이데올로기’와 발음이 비슷)’가 있다. 정문 쪽에서 대강당으로 오르기 위해 반드시 밟게 되어 있는 돌계단의 별칭이다. 예전에는 정문 등굣길 다리에서 신

촌역으로 오가는 기차의 꼬리를 밟으며 오늘의 운세를 점쳤다. 우연찮게 꼬리를 밟는 날도 있었다. 운수대통! 물론 다리 위에서 걸음을 조절하는 것은 암묵적 필수다. 그러나 행운의 미소가 대강당 앞 ‘이대오르기’ 돌계단을 쭉 펴거나 에스컬레이터로 변신하는 기적까지 만들지는 않았다. 성공한 졸업생이



PHOTO BY MASK S.J / CAN

되어 거액을 턱 내놓는 상상은 통쾌했다. 한 마디 외치는 것이다. ‘돌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바꿔 주세요!’ 그토록 어마어마했던 이대오르기는 과연 몇 계단이나 될까. 세어 봤다. 모두 45개. 계단참 포함 15개 계단씩 3세트이다. 겨우.

1956년 건립된 이화의 얼굴

돌계단 언덕 위에 자리잡은 대강당은 명실상부 이화 캠퍼스의 얼굴이다. 물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본관도 있고, 최첨단 ECC 역시 규모나 위용 또한 간단치 않지만, 대강당에서 보낸 소중한 경험과 시간들은 이화인의 뇌리에 단단히 각인되어 있다.

대강당이 건립된 것은 1956년이다. 한국전쟁 당시 이화가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신촌캠퍼스로 돌아오자마자 전쟁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라며 지은 건물이다. 1956년은 마침 이화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대강당은 당시 모교 재학생 4,000여 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국내를 넘어 동양 최대 규모의 강당이었다. ‘어려울 때 일수록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모아 건립한 대강당. 대강당 앞면의 맨 위에 새겨 있는 십자가는 그 마음만큼이나 소박하고 옹골지다. 대강당은 고딕 건축 양식을 현대화한 화강암 건물이다. 돌을 완자무늬 식으로 디자인하여 서양의 고전미와 한국의 고전미를 조화시켰다.

현재의 대강당은 2000년 한 차례 외관 공사와 천장, 무대 등의 내부 수리를 통해 2,912석의 좌석과 첨단 음향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건립 때도 그랬지만 보수를 할 때도 이화의 동창, 교직원과 그의 가족 등 정말 많은 이화인들이 마음을 냈다. 대강당 좌석 팔걸이에는 이를 기리는 뜻에서 성경 말씀 한 구절과 후원자 1~5명의 이름을 적어두고 있다.

이화 공동체의 기억, 채플

예나 지금이나 대강당 하면 떠오르는 것은 채플이다. 대강당의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정된 좌석에 앉아야 출결이 확인되고, 비로소 한 주가 무탈히 시작되었음을 안도했던 기억이 있다. 이화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지고 그 정신으로 발전해 왔기에 대강당의 채플은 이화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화인의 소중한 기억을 담고 있는 대강당



햇살이 고즈넉하게 내려앉은 대강당 내부



팔걸이에 새겨진 후원자들의 이름

2018년 현재도 대강당의 채플은 여전하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말씀 위주의 채플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공연과 동창 및 외부인사 초청 강연도 함께 프로그램화하여 문화·인성 교육의 장으로도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교내 목회와 선교를 담당하는 교목실 박서연과장에게 요즘 채플 시간의 풍경을 물었다. 교목실은 대강당 1층에 자리한다.

“시간 되면 문을 닫는 것도, 학생들이 뛰는 것도 같아요. 배정된 좌석에 앉은 학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꺼내 듭니다. 그렇지만 요즘 학생들은 멀티가 가능해요. 스마트폰에 빠져들어 있는 것 같다가도, 귀와 눈은 열어 둡니다. 공감하는 장면이 나오면, 실시간 ‘톡’으로 중계도 하지요.”

공연 채플이 도입되면서 채플 수업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졌다. 종교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인성 교육 강화와 봉사 정신 함양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며 거부감을 줄여 나가고 있다.

2017년에는 영상, 무용, 드라마, 힐링, 사랑과 나눔, 이화감사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공연 채플이 기획되었는데, 특히 새로 선보인 드라마 채플과 힐링 채플이 호평을 받았다. ‘엄마와 딸’이라는 제목의 드라마 채플은 이화인들이 엄마와 딸의 관계를 돌아보는 치유와 화해의 시간이 되었고, 음악극 형식의 ‘The Giving Tree’라는 힐링 채플은 아낌없는 사랑 속에서 삶의 고단함을 위로받을 수 있었다는 평이 많았다.

다양한 공연 채플로 공감도 높여

개강을 앞둔 대강당의 빈 좌석을 하나 차지하고 고요히 앉아 옛 기억을 더듬는데, 재학생들 한 무리가 들어섰다. 모두 5명이었다. ‘이화캠퍼스리더와 함께하는 – 새내기 공강 투어’ 중이라고 했다. 재학생 홍보대사인 이화캠퍼스리더 서민지(경영학부 2학년) 재학생의 안내에 잠시 귀기울여보았다.

“대강당에서는 주요 교내외 행사가 치러집니다. 교내 행사로는 오리엔테이션, 입학식, 학위수여식(졸업식), 개교기념일 창립기념식이 있고요. 저는 입학식 때 이곳에 앉아 박은영 무용학과 선배님의 학교 경험담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학위수여식은 1년에 2번 있고요. 개교기념일 창립기념식도 해마다 성대하게 치러져요. 개교는 1886년에 하였고, 올해는 13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2009년에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문해서 2,000여 명의 재학생과 ‘대강당 미팅’을 가졌죠. 본교



학생들과의 열띤 질의 응답이 화제가 됐었어요. 힐러리가 우리 이화인의 영어 실력에 깜짝 놀랐다죠? 2014년에는 침팬지의 어머니 제인 구달이 <희망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어요. 정문까지 줄을 섰을 정도지요. 소녀시대가 와서 공연하기도 했고, 콘서트나 팬미팅 행사도 열립니다. 대강당에서 다양한 공연이 열리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즐기시길 바라요.

자, 다음은 채플입니다. 채플은 군대나 학교 등에서 행하는 기독교식 약식 예배예요. 이대 재학생이라면 8학기 매주 1회 30분씩 채플 수업을 들어야 해요. 기독교식 수업이라 비기독교인에게는 의문일 텐데요, 종교 주입이라기보다 사랑 나눔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나누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무용 채플이 인상 깊었어요. 무용과 선배들이 열심히 공연해 주었어요. 어디서 돈 주고도 못 보는 공연이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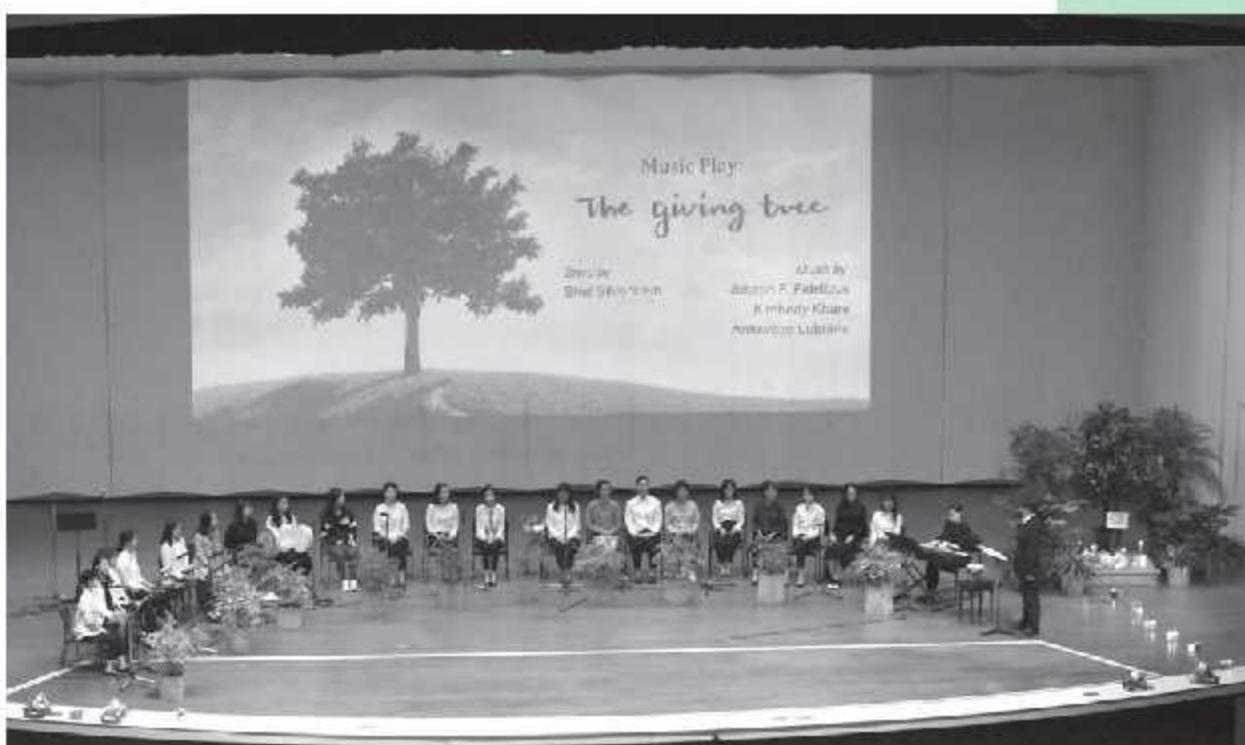
참으로 똑 부러진 해설이요, 총총한 눈과 귀를 가진 후배들이었다. 다만, 대강당에서의 외부 행사를 설명 할 때 누군가는 당대 큰 소동이었던 클리프 리차드(1969년)의 공연을 기억하는 이가 있을 거란 데에 생각이 미치자 웃음이 푹 하고 터졌다. 믿거나 말거나 속옷을 던졌다는 소문이 돌았고, 공자 때부터 등장했다는 ‘요즘 것들은…’의 개탄이 예외없이 난무했단다.

이화인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특별한 공간

채플로 빈번히 만나고, 오리엔테이션, 입학식, 졸업식 등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화인은 대강당을 만난다. 강연이나 콘서트 등의 외부 공연도 다양하게 열리니, 대강당은 이화인으로서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오래 특별하게 만나는 뜻깊은 공간이 아닌가. 1956년 아래 술한 이화인의 소중한 기억을 고스란히 묵묵하게 간직하고 있는 대강당을 어루만지듯 둘러보고, 잠시 대강당 앞에 멈추어 서서 대강당의 시선과 마음으로 교정 풍경을 바라보았다. 정문 안 삼거리로 중심으로 정문 주변과 ECC와 박물관 등이 한눈에 펼쳐진다. 스스로 봄인 듯 봄처럼 걸음을 옮기는 교정의 이화인과 방문객들의 활기찬 모습에 잠깐 눈시울이 따뜻해진다.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 무더운 여름철이라면, 서늘하고 적요한 대강당의 빈 좌석을 찾아 잠시 쉬어도 좋으리라.



무용 채플 등 공연 채플의 도입으로 공감도를 높였다



새로 선보여 호평받은 힐링 채플

글·박종분(중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화인 모임 탐방 / 이화공인회계사회

“회계 투명성은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이화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몰라서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공인회계사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동창들에게 같은 길을 걷는 동료로서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한마디로 이 분야에 먼저 발을 들인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잘 닦아 놓은 곳에 뻗은 신작로랄까? 후배들이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선배들의 마음이 담긴 응원과 후원의 마당, 이화공인회계사회를 소개한다.

2018년 현재 모교 출신 공인회계사는 597명(누적 인원)이다. 1980년대만 해도 여성에게는 불모의 땅이었던 공인회계사 분야에 많은 여성들이 도전해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대형 법인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졌다. 2003년에는 현 이화공인회계사회 회장인 서지희(경영 85·삼정KPMG 전무) 동창이 대형회계법인 첫 여성 임

원에 선출됨으로써 모교 출신들의 회계사 진출에 든든한 견인차가 되었다. 그후 2007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모교 출신 최다 인원이 합격해 전체 여성 합격자의 22%를 차지했고, 2016년에는 모교에서 1, 2차 수석 합격자를 배출했다. 또한 2017년에는 38명 합격(최근 10년 이내 최대 인원 합격)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처음부터 이런 골치 아픈 숫자를 밝힌 이유는 회계사라는 직업이 숫자와 친하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전체 여성 합격자 중에서 모교 출신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이화공인회계사회에게 주어진 최대 미션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의 목표는 40명을 넘기는 것. 그것을 위해 이화공인회계사회는 지금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모교에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해 이화공인회계사회의 통 큰 후배 사랑을 보여줬다.



(왼쪽 페이지)CPA 데이 행사에서 후배들에게 회계사 시험 및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회원들 (위)2016년 이화공인회계사회 훈커밍데이 행사

모교 출신 첫 공인회계사인 노석미(경영 83, 1982년 합격) 동창과 서지희 동창(1986년 합격)은 이화공인회계사회의 창단 멤버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합격한 당시에는 공식적인 모임이나 행사는 없었고, 회계사로서의 어려움과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친자매처럼 지내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2003년 서 동창이 대형회계 법인 임원이 되고 모교 출신 회계사 누적 인원이 50여 명이 되면서 본격적인 모임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화공인회계사회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2010년부터 경영학과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CPA 데이’를 들 수 있다.

1년에 두 차례씩 이뤄지는 이 행사는 후배들에게 회계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리고, 시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ECC 안에 상담 부스를 만들어 하루 종일 일대일 카운슬링 형식으로 진행되

며, 상반기에는 주로 1~2학년을 대상으로 CPA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하는 활동이 중심을 이룬다. 특히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학과 공부 중 어떤 과목이 시험에 도움이 될까요?” 같은 구체적인 질문에 보다 생생한 답을 주기 위해 주로 최근에 합격해서 현역에 있는 선배 회계사들이 카운슬러로 배치된다.

하반기에는 CPA 준비반에 입소해 있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시험 직전에 찾아가 시험에 대한 정보와 팁을 알려주고 용기를 북돋는 개인적 카운슬링으로 꾸려진다. 이 외에도 합격 수기집 발간과 합격 전략 설명회 등 공인회계사가 되고 싶은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알찬 행사들도 제공된다.

CPA 데이는 회를 거듭할수록 호응이 뜨거워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이라면 꼭 참가해야 하는 필수 코스로 자리잡았다. 쉽고 말랑말랑한 말로 설명해 주는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나

면, ‘회계사는 딱딱하고 지루할 것’이라는 편견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는 의지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카운슬러로 참가한 선배들도 후배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나도 저맘때는 저런 고민을 했었지’ 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학교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경험한다.

또 다른 활동은 2013년부터 개최되는 ‘홈커밍 데이’다. 그해 시험에 합격해 신참 회계사가 된 후배들을 마음껏 환영하는 자리이자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 간에 화기애애한 대화와 격려가 오가는 뜻깊은 시간이다. 그날은 경영학과 학과장을 비롯해 다양한 회계법인에서 활약하고 있는 쟁쟁한 선배 회계사들의 축하인사와 연주 및 노래로 꾸며지는 축하공연, 조촐한 식사 등의 순서가 마련된다.

회계사는 여러 전문 자격시험들 중에 여성 합격자 비율이 30%가 안 되는 유일한 분야다. 숫자를 잘 다뤄야 한다는 것과 기업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 능력이 요구된다는 선입견 때문인지 여성들이 직업으로서의 공인회계사 선택을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다.

서지희 동창은 여성 회계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이 분야에 진출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회계 투명성과 경제적 도덕성 문제 또 포용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요즘의 추세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여성들의 투명하고 꼼꼼한 업무처리 기술은 이 업계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특히 모교 출신이 이 분야에 많이 들어오도록 적극 권장하는 것도 여성의 참여가 단순히 경제력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변

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회계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유연하고 열린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업계 전체에서 여성의 숫자를 늘리고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자리에 여성들이 많이 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 동창은 그런 역량을 갖추는 데 이화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며 “이화 출신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성 회계사들 중 모교 출신 회계사들이 단연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앞으로 그 비율을 꾸준히 높이는 것이 서 동창의 간절한 바람이다.

선배들이 이끌어 주는 이런 조직이 있다는 것은 후배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된다. 시험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 걱정 없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든든한 지원군이기 때문이다. 모교에서도 CPA 준비반 확충 및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경영·경제학과 외의 타과 졸업생들도 회계사 시험에 많이 지원하는 추세다. 회계사라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배경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요즘에는 인문학적 소양과 논리적이고 혁신적인 사고가 더욱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학부 출신들이 회계사 분야에 들어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모쪼록 해를 거듭할수록 모교 출신 공인회계사 가가 더 많이 배출되어 이화공인회계사회가 더욱 더 풍성한 인재풀을 가진 역량 있고 활기 넘치는 모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대학(원) 순서로 게재

대학(원) 소식

음악대학

회장__ 임진(작곡 72)

이화신년음악회 개최

음악대학 동창회에서 후원하는 2018년 이화신년음악회가 1월 5일(금) 모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기품과 격조 높은 클래식의 향연에 많은 관객들이 호응하였고, 음악대학의 저력을 보여 줄 수 있었다. 음악대학 동창회 임원들은 1월 26일(금) 신년회를 열고, 2018년에 있을 다양한 행사의 계획들을 의논하였으며 더욱더 발전된 동창회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적극적인 선교사 후원과 음대 장학생들의 세심한 선발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에 겸손히 순종하기로 뜻을 함께했다. 앞으로 음악대학 동창회는 평생이사의 확대를 통해 동창들 간의 더욱 굳건한 결속

과 화합을 도모할 것이다.

조형예술대학

회장__ 봉지희(섬예 85)

행운권 선물로 풍성하게 치른 녹미 총회

2월 2일(금) 11시에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조형예술대학 동창회 녹미 총회를 개최하였다. 강애란(서양 83) 모교 학장의 축사와 각 과 교수, 역대 동창회장의 격려 메시지, 조형예술대 학창단 및 임원 등 8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총회를 마쳤다.

각 과 동창회의 연간 활동 보고와 선교 보고 및 각 과에서 협찬한 100여 점의 행운권 선물로 더욱 풍성한 총회를 만들 수 있었다.



신년회에 참석한 음악대학 동창회 임원들



ECC 이삼봉홀에서 열린 조형예술대학 동창회 녹미 총회

간호대학

회장__조혜숙(간호 76)

LA에서 간호대학 동창 모임 가져

1월 20일(토) LA J.J. Grand Hotel에서 이화여대 간호대 남가주 동창회가 열려,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소식과 동창 소식을 나누었다. 동창회 참석자는 아래와 같다.

안영숙(75, 회장), 양정남(60), 송명(62), 최유식(68), 이애희(69), 박일선(71), 김혜숙(72), 조인서(72), 최규련(72), 김순배(73), 김영순(73), 김옥이(74), 안혜숙(74), 김정순(75), 이애숙(76), 한옥주(76), 김혜숙(86), 박수영(90). 함지윤(96), 문지현(98), 이보경(생미 80, 남가주 지회 회장), 장계원(문정 76, 남가주 지회 이사장).



신입 동창 환영회에 참석한 약학대학 동창들

약학관 B동 108호(교수회의실)에서 각각 가졌다.

1월 12일(금) 오전 11시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5층 토파즈룸에서 임원 50명이 참석하여 임원회 및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 많은 수의 임원들이 한복을 입고 와 신년 분위기를 북돋웠다. 회장 인사 및 경과 보고가 있었고, 최혜정(약학 49) 고문의 격려사가 있었다. 주홍장학회, 약학연구소 후원회와 개국동문회 경과 보고와 함께 각 부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바리톤 이효범, 소프라노 원지혜의 특별중창 <Perhaps Love>, <Nella Fantasia>,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O Sole Mio>를 감상했다. 이어서 케이크 커팅을 하였고, 훈훈한 덕담, 시낭송, 치매 예방법, 즐겁게 살아가는 법 소개 등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2월 13일(화) 오전 11시 선교 예배를 약대 약학관 B동 108호(교수회의실)에서 가졌다.

2월 20일(화) 오후 3시, 모교 ECC극장에서 신입 동창(69회) 환영회를 열었다. 동창회 임원 20명과 신입 동창 57명이 참가하여 선후배간에 서로를 격려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신입 동창 대표의 입회 선서와 회장의 환영사 및 임원 소개가 있었다. 김순영(약학 62) 총동창회 고문이 나눔과



LA에서 열린 간호대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동창들

약학대학

회장__이미애(약학 79)

신년 하례회, 선교 예배, 신입 동창 환영회

2017년 12월 12일(화) 오전 11시 성탄 축하 예배와 2018년 1월 9일(화) 오전 11시 선교 예배를 약대

섬김의 정신, 조화의 아름다움, 4차 산업혁명시대, 최초의 노벨상의 영원, 마무리 시낭송(박두진의 「선언」)의 내용으로 축사를 하였다. 이어서 신입 동창의 답사와 입회비 증정이 있었다. 제2부 특별 강연으로 <새로운 내일을 위해 준비해 온 과정과 ‘제약 산업과 특허’라는 제목으로 안소영(약학 83) 동창이 강의를 하였으며 <병원 약사의 현황과 최근 동향, 병원 약제부의 역할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김정미(약학 83) 동창이 강의했다. 제3부에서는 약학과 69회 창립총회가 있었고 회칙 통과 및 신입 동창 기수 회장 등 임원 선출을 하였다.

생활환경대학

회장 __ 최인순(의직 79)

가정학 88주년 및 동창회 창립 65주년 축하
가정대학 동창회 아령회는 가정학 설립 88주년 및 아령회(동창회) 설립 65주년을 축하하는 ‘아령인의 밤’ 행사를 2017년 12월 11일(월) 롯데호텔 소공동 본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문종 모교 부총장을 비롯하여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어머니가 가정대 졸업), 역대 임원진과 명예 교수, 1968년에 졸업한 졸업생 19명, 1969년에 졸업한 졸업생 18명 등 500여 명의 동창들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아나운서 진양혜(수학 92) 동창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김혜숙 모교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김동길 전 연대 교수, S-MODE 박윤정(가정 55) 이사장, 우크라이나 문화원장 심실(장미 78) 동창 등 여러 귀빈이 축사를 하였고, 이봉화



아령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생활환경대학 동창들

(가관 69) 동창이 그린 모리스 여사의 초상화를 부총장에게 전달했다. 김숙희(가정 60) 명예교수와 최고령 동창의 건배 제의로 만찬이 시작되었고, 2부에서는 동창들의 축하 행사인 해금 연주, 피아노 연주, 합창단 공연이 이어졌다. 초대 손님으로 뮤지컬 가수 김법래, 박정자(커미부 04명예졸), 이미배의 축하 노래가 이어졌고, 100여 건의 푸짐한 행운권 선물 추첨이 있었다.

여러 동창들은 모교의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을 후원하고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고, 이화동창의 자부심과 사랑을 담아 교기를 부르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디자인대학원

회장 __ 김정숙(디대원 93)

디자인대학원 동창 교류의 밤 성황리에 개최
디자인대학원 동창회에서는 디자인대학원 8개 전공의 졸업생, 재학생, 교수님 포함 250여 명의 동창이 함께하는 ‘2017 디자인대학원 교류의



교류의 밤 행사에 참석한 디자인대학원 동창들

'밤'을 모교 LG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특별초청 강연, LED 패션퍼포먼스 공연, 오페라나 뮤직쇼와 베스트 드레서상 수상, 행운권 추첨, 만찬, 전공별 졸업생과 재학생 간 멘토&멘티 플레이 등 알찬 순서로 이어졌다. 본 행사로 디자인대학원의 단합과 위상을 대내외에 알렸으며, 졸업생과 재학생, 교수가 소통하고 성장하는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었다.



이화동창 회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이화동창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평생회비, 연회비는 총동창회의 장학사업, 회보 제작, 모교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회비 납부를 통해 이화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 평생회비(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30만 원 – 2018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0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 – 2018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1년 이후 졸업 동창

◆ 연회비(1년에 1번씩 납부)

3만 원

◆ 납부 방법

지로 혹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김영주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부) 소식

과(학부) 순서로 게재

중어중문학과

회장__강영매(86)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

1월 17일(수) 12시에 상수동의 서강팔경에서 신년 하례회를 개최하였다. 동창회의 활성화와 더 많은 동창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고, 기별로는 카톡을, 전체 동창들은 밴드 활동을 중심으로 동창회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을 검토하였다.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중문과 동창들

영어영문학과

회장__김혜정(72)

애란원 방문과 신년 하례식

2017년 12월 7일(목) 동창들이 기부한 의복과 신

발, 그릇 등을 가지고 애란원을 방문하여 사랑 나눔 활동을 하였다. 애란원은 미혼모부자 지원센터로 12명의 미혼모가 아이들을 양육하며 수업 또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이다. 많지 않은 물건들이었지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전달하였다.

또한 2월 27일(화) 12시에 원로 교수, 고문들을 모시고 JS가든 잠원점에서 신년 하례식을 하였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93세의 윤정옥 교수가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승아(92) 영문학과장이 영문학과 현황과 82명의 신입생, 학교의 정시모집 통합선발제도 등 새로운 소식을 설명하고, 영학회 장학 활동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였다. 참석한 고문들은 총동창회의 역할과 그 가운데 영학회의 위치, 모교의 위상을 올릴 필요성과 방법, 이화동창들의 사회, 가정에서의 지위 재정립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영문과 동창들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영학회는 3월 13일(화)에는 역사탐방 사전답사, 4월 19일(목)에는 기간사와 임원이 함께 ‘서촌 돌아보기’, 5월 1일(화)에는 춘계강좌를 기획하고 있다.

독어독문과

회장 이봉무(72)

임원단 및 기간사 모임에서 행사 논의

1회 서용좌(67·전 전남대 교수) 동창이 2017년 제 33회 PEN 문학상(소설부문)을 수상하였다. 수상식에 이어 주최 측에서 마련한 송년회에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님을 비롯한 독문과 동창들이 많이 참석하여 수상을 축하하였다.(축하 사진 참조)

2월 23일 (금) 강남호텔에서 동창회 임원단 및 기간사 모임이 있었다. 이봉무 회장이 지난 회기에 이어 동창회장을 연임하게 되었다. 1회 민용자 동창(67)이 병따개, 타이머 등 부엌 용품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었다. 또한 5월 동창의 날을 맞아 새로운 주소록 작성과 2회 동창들의 졸업 50주년 기념, 22회 동창들의 졸업 3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서용좌 동창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박사논문 지도교수인 이병애 교수와 1회 동창들, 최민숙 교수 그리고 독문과 동창회 임원단

사학과

회장 한상혜(73)

신년 하례를 겸한 간사회 열어

2017년 12월 21일(목) 용수산에서 2017년을 마무리하는 간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12월 4일(월)에 열린 ‘이화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회장단과 간사들의 보고가 있었으며 2017학년도 동창회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해의 다짐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고문들과 간사들이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선후배 간의 유대를 돋구하고 풍성하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8년 2월 22일(목) 신년 하례를 겸한 간사회를 용수산에서 열었다. 선배들의 덕담을 들으면서 새로운 한 해 동안 활발히 활동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올해 말 발간 예정인 《사우회보》의 내용 구성과 원고 모집에 관한 회의도 진행하였다.

종교음악과

회장 최은희(81)

성탄음악회에서 다양한 오르간 작품 선보여

2017년 12월 23일(토) 김영의 홀에서 ‘이화여대 오르간 동문들과 함께하는 성탄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옥주(95)·임세은(96)·전은배(96)·최주용(96)·박소현(99) 동창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탄 코랄(Choral) 작품들을 연주하였다. 또한 오르간 Solo, 피아노와 오르간 Duo, 오르간 Duo For Four Hands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선보이며 오르간의 풍부한 매력을 보여 주었다.

동양화과

회장 __ 박정란(86)

오숙환 교수 오픈 연구실 개최

2017년 12월에 정년을 맞은 오숙환(75) 교수의 오픈 연구실 행사가 동창회 주관으로 2017년 12월 20일(수)부터 21일(목)까지 이틀에 걸쳐 열렸다. 오 교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형예술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예술대학 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정해진 형식 없이 다음과 담소를 나누는 정겨운 자리로, 수많은 제자와 외부 손님들이 함께한 소중한 추억의 행사가 되었다. 한편 동양화 교육의 스승인 이종목 교수의 개인전 ‘HOLY PARADOX’가 1월 17일(수)부터 29일(월)까지 동덕아트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오숙환 교수의 오픈 연구실 행사에 참석한 제자들

서양화과

회장 __ 조기련(83)

이준 교수 상수 기념전과 이서회 임시 총회

이준 교수의 100세를 맞아 개최되는 ‘빛의 향



이준 교수의 상수기념전에 참석한 서양화과 동창들

연–이준’ 상수(上壽)기념전이 2월 8일(목)부터 5월 16일(수)까지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2월 8일(목) 오프닝 행사에는 강애란(83) 조형예술대 학장을 필두로 여러 제자들과 동창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고, 지역 인사들도 함께하여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 동창회(이하 이서회)는 2018년 이서전 전시 및 운영에 관한 논의를 위해 인사동에서 임시 총회를 열었다. 동창 간의 발전적인 관계와 친목을 위해 작업실 탐방, 소그룹 모임 등을 장려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에는 더 욱더 활발하게 이서회 활동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

조소과

회장 __ 나진숙(84)

정기총회에서 회장 이·취임식과 새 임원진 소개

2017년 12월 22일(금) 인사동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14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에서 보고할 회무 내용을 점검하였다.

2월 2일(금) 이대 ECC 이삼봉홀에서 열린 녹미회(조형예술대학 동창회) 총회에 10명의 조소과 동창회 운영위원이 참석하였고, 총회 후 조소과 동창회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

2월 23일(금) 인사동에서 25명의 동창들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 동창회 및 조각회의 회무 및 활동 보고와 감사 보고가 있었고, 회장 이·취임식(전임 회장께 감사패 전달 및 임원진 선물 증정)과 새 임원진 소개가 있었다. 신임 나진숙 회장을 중심으로 2018년도 사업계획안과 동창회 및 조각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동창들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회칙 개정이 있었다. 조소과 동창회 발전을 위한 2018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비전 이화인전, 132주년 동창의 날 행사, 제35회 이화조각전, 2018 이화인의 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상을 통해 2017년 조소과 동창회의 여러 행사를 살펴보며 지난 1년간의 동창회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동창들이 기부한 선물을 행운권 추첨을 통해 함께 나누는 훈훈한 자리도 마련되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소과 동창들

섬유예술과

회장 이상미(88)

무형문화재로 선정된 김혜순 동창 축하 모임

섬유예술과 동창들은 무형문화재로 선정된 김혜순(66) 동창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8년 1월 4일(목) 문화재청은 김혜순 동창을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보유자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김 동창은 김희진 매듭장 명예보유자로부터 기술을 전수한 뒤 40여 년간 매듭을 제작해 오며 전통 매듭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승과 보급에 힘써 왔다. 매듭장은 여러 종류의 매듭을 짓고, 매듭에 달린 장식인 술을 만드는 기술을 뜻한다.



김혜순 동창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섬예과 동창들

섬예과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가며 위상을 높인 김혜순 동창을 위해 섬예과 동창회에서는 식사 및 축하 자리를 마련하여 이를 축하하였고, 섬예과 동창들은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유아교육과

회장 유정옥(88)

신년 하례 행사로 뜻깊은 자리 마련

1월 11일(목)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



신년하례 행사를 개최한 유아교육과 동창들

문화관 806호)에서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동창회가 신년 하례 행사를 개최하였다. 현직 교수 및 동창회 전·현직임원, 신입 동창 등 6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퇴직 은사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신년 하례 행사를 진행하였다.

1부는 박희경(89) 부회장의 사회로 찬송가를 부르며 시작하였고, 안영주(88) 선교부장의 기도, 유정옥 동창회장의 인사, 이정환(교육 55)·이은화(59) 은사님의 덕담, 학과 및 부속기관장의 소식 전달 순서로 진행되었다.

졸업 10·20·30·40주년 기념 동창과 신입 동창에게는 축하와 환영의 의미를 담은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2부는 이기숙(72) 은사의 건배사로 시작되어 화기애애한 담소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경쾌한 음악을 배경으로 한 샌드아트 공연 ‘모래가 들려 주는 이야기’를 관람하였으며, 각자의 새해 소망을 적은 행운권을 추첨하여 선물을 나누는 등 게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였다. 행사를 위해 임희옥(76)·김양선(88)·강윤정(91)·고은경(91) 동창이 후원하였다.

유아교육과 동창회에서는 해마다 1월 11일 신년 하례 행사를 마련하여 은사님들께 새해인사를 드

리고, 선·후배동창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특수교육과

회장 _ 한은주(79)

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개최

2월 1일(목) 오후 6시 ECC 이삼봉홀에서 특수교육과 동창 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1975년 졸업생부터 2018년 졸업생까지 85명이 참석하여 총회, 신입동창 환영, 식사, 추억의 사진 영상전, 행운의 선물 등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선후배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화 특교인의 우의를 강화하였다.



특수교육과 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에 참석한 특교과 동창들

가정관리학과

회장 _ 김상희(81)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진 임기 1년 연장하기로 2월 28일(수) 수담한정식에서 임원진의 2년 동



정기총회를 갖고 동창회 운영에 대해 논의한 가정관리학과 동창들

안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기총회를 가졌다. 회계를 보고하고 동창회 운영 방안 및 기금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동창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김상희 회장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진이 1년 더 임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류직물학과

회장__최비숙(80)

문화탐방으로 신년을 시작

의류직물학과 문화탐방 동호회는 1월 23일(화) 예술의전당에서 '마리 로랑생' 전을 관람하며 신년 활동을 시작하였다. 제8회 문화탐방은 2월 27



문화탐방으로 신년 모임을 시작한 의직과 동창들

일(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에르미타시' 전과 '동아시아의 호랑이미술' 전을 동시 관람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아시아 삼국의 호랑이 미술을 비교 관람할 수 있었으며, 러시아의 겨울궁전 속 프랑스 미술을 바로크부터 인상파까지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학 중이라 관람객들이 많았지만, 동창들은 함께 도슨트 해설을 들으며 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 중간 휴식에는 차와 함께 2018년 탐방 계획 등 담소를 나누었으며 3월 문화탐방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식품영양학과

회장__정조인(83)

2017 아령인의 밤 개최

2017년 12월 11일(월)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화가정학 88주년 및 아령회 65주년 기념행사인 '2017 아령인의 밤'에서 은사 김숙희(가정 60) 교수를 모시고 학과 교수님, 많은 선배님, 후배님과 대학원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고 즐거운 자리를 가졌다. 한편 식품영양학과 정조인 회장 이하 임원진들은 동창회 활동을 1년 더 봉사하기로 하였다.



아령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식영과 동창들

제3회 ‘빛나는 이화인’ 상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30주년을 맞이한 2016년에 총동창회는 ‘빛나는 이화인’상을 제정하였습니다. ‘빛나는 이화인’상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이화 정신에 입각한 선도적 행동으로 타의 모범을 보이고 탁월한 역량으로 사회에 공헌한 동창들을 선정하여, 그 공을 치하함과 동시에 그 공적을 널리 알림으로써 새 시대에 걸맞는 이화인의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상입니다. 귀하를 ‘빛나는 이화인’상 수상 후보자 추천인으로 위촉하오니 아래 시상 요강을 참조하여 훌륭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132주년 기념일인 5월 31일(목) ‘동창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제3회 ‘빛나는 이화인’상 수상 후보 추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시상내용** 상패와 증서
- **수상 후보 자격** 과학, 경제, 의료, 법률, 교육, 문화, 예술, 종교,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이화의 정신에 입각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뛰어난 업적으로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이화여자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2018년 현재 현직에서 활발히 활약하고 있는 1952년 이후 출생한 본회의 회원
- **추천인 자격** 각 과(학부), 대학 및 대학원 동창회장
국내 및 해외 지회장
전문직 동창클럽 회장
동창 100인 이상(연명 날인)
- **구비 서류** 추천 사유 및 후보자 업적사항 전술서 1통(본회 소정양식)
후보자 이력서 1통(명함판 사진 1장 포함)
후보자 업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기타 필요 서류
- **접수 기간** 2018년 4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우편 접수는 4월 20일(금)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함
-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우 03760)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니 주요 증빙자료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동창회 사무실(02-3277-338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지회 소식

가나다순으로 게재

남가주(LA) 지회

회장__이보경(생미 80)

2017년 정기총회 및 송년파티 행사

2017년 정기총회 및 송년파티가 12월 16일(토) 오전 11시에 2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장경해(피아노 75) 전 회장과 장계원(문정 76) 이사장의 인사 후 이보경(생미 80) 신임 회장의 인준 및 취임 인사가 있었다. 이어 남가주 동창회원 자녀 3명에게 각각 1,000달러씩 남가주이화동창회 장학금을 수여했다.

2부 송년파티에서는 한나리(체육 92) 동창의 사회로 다양한 음악과 댄스의 잔치를 펼쳤다. 음악 프로그램은 조숙자(성악 64) 동창의 지휘와 주희

정(피아노 08) 동창의 반주로 이대 남가주동창합창단의 <Christmas Carol> 합창 연주로 시작하였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품위를 그대로 간직한 소프라노 이귀임(성악 63) 동창의 <O Holy Night> 독창 후에 김민자(피아노 78) 동창의 <Greig Piano Concerto No.1 Theme> 피아노 독주, 김희정(피아노 02) 동창의 <Fanatasie—Impromptu OP.66 by F. Chopin> 피아노 독주가 이어졌다. 이어 소프라노 권희정(성악 02) 동창의 <Think of Me(from The Phantom of the Opera)> 독창, 정민경(불문 76) 동창의 가라오케 독창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그 외 마이클 잭슨이 살아 돌아온 줄 착각하게 한 REMJ Dance 공연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으며, 김지영(무용 85) 동창이 운영하는 ‘진 발레 스쿨’ 학생들의 댄스 공연이 이어졌고, 김지영 동창이 직접 단체 댄스를 지도하는 순서도 있었다. 이번 송년 파티는 2000년대 학번 젊은 동창들이 처음으로 많이 동창회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특별히 고무적인 행사가 되었다.

남가주 동창회 산하에는 거주 지역별 모임, 단과대학별 모임, 취미 모임 등 다양한 모임들이 있어 이런 소그룹을 통해 동창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기총회 및 송년파티 행사를 개최한 남가주 지회 동창들

뉴욕 지회

회장__박영숙(경영 86)

신년 하례식과 이해경 동창의 북 사인회

2018년 신년 하례식이 2월 10일(토) 낮 12시 30분에 유덕향(약학 71) 이사장 집에서 있었다. 25명의 동창이 모여 유 동창이 손수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며 새해 계획을 나누고, 이해경(성약 50) 동창의 인생 여정을 듣는 유익한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이해경 동창의 북 사인회가 2월 28일(화) 저녁 6시부터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근현대사의 산증인이자 이화뉴욕동창회의 든든한 버팀목인 이 동창은 의친왕의 딸로 태어나 격동의 세월을 살아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남겨야 할 시기라는 판단에 『마지막 황실의 추억』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한다.



유덕향 이사장의 집에서 신년하례식을 한 뉴욕 지회 동창들

라스베가스 지회

회장__민순기(사회 70)

부부동반 송년파티 개최

2017년 12월 9일(토) 라스베가스 시내 ‘궁’ 식당

에서 부부동반 송년파티를 개최하였다. 이 모임에서 라스베가스 지회 동창들은 그동안 수고한 임원진에게 감사함을 전달하였으며, 새 임원진(회장 민순기, 부회장 문영신·식영 71, 총무 김선주·영문 78, 회계 이명숙·문정 66)을 선출하였다.

2018년 1월 첫 모임을 열고, 지역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과 더불어 지역 동창 간의 우의를 더욱더 돈독하게 다지는 동창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였다. 모교 총동창회에는 500달러를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멜버른 지회

회장__박혜진(독문 97)

한국 전통음악 공연 관람

2월 7일(수) 오후 5시 30분에 Malvern에 소재한 Harmony BBQ and Seafood 중식당에서 2018 신년 첫 모임을 가졌다.

저녁 식사 모임 후, 참석한 동창들은 예배 연주를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한 김은영(한음 03) 동창



김은영 동창의 한국 전통음악 공연

소속의 자비선교단체의 공연을 멜버른 한인교회에서 함께 관람하였다. 쉽게 접할 수 없는 한국 전통음악 공연에 모두들 큰 감동을 받았고, 김은영 동창과의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며 헤어졌다.

밴쿠버 지회

회장 __ 강호정(경영 73)

설맞이 동창 모임

밴쿠버 지회의 송년회 모임이 2017년 11월 26일(일) 많은 동창과 이화 사위들이 참석한 가운데 Vancouver Golf Club에서 열렸다. 동창들은 즐거운 오락과 함께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나누며 교제 시간을 가졌다.

2월 3일(토) 로얄서울관 식당에서 40여 명의 동창과 이화 사위들이 모여 서로 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특히 80세를 맞이하는 선배 동창들에게 후배들의 정성어린 사인이 들어간 카드와 선물을 드리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설날 모임에 참석한 밴쿠버 지회 동창들

베이징 지회

회장 __ 김미중(사학 85)

이화라는 이름으로 함께 웃을 수 있음에 감사

매월 둘째주 수요일은 베이징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날이다. 베이징 지회 이화인들의 모임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75학번부터 05학번까지 총 25명으로 구성된 베이징 지회는 회장 김미중·부회장 강미경(생미 88)·총무 배규영(수학 03)·회계 윤종연(중문 07) 동창으로 이루어진 임원진을 비롯하여 25명의 동창이 매월 만남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친목을 다지고 있다.



신년모임을 통해 선후배가 하나가 된 베이징 지회 동창들

베이징 지회에서는 타지에서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며 당당하게 봉사를 나누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화 선후배들을 격려하고 있으며, 매달 생일 축하와 함께 이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 베이징은 정치, 경제적 어려움이 특히나 많았다. 지회에서는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북돋워 주며 잘 지내온 이화인들에게 감사하고 격려하기 위한 송년 모임을 2017년 12월 13일(수)에 가짐으로써 한 해를 잘 마무리하였다.

2018년 1월 8일(월)에는 힘차게 시작하는 의미

의 신년 모임을 이정선(서양 87) 동창의 집에서 함께하였고, 새해 인사와 윷놀이, 떡국을 비롯해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베이징 지회는 운동을 비롯한 취미 활동, 종교 활동 및 정기 모임을 통해 타지에서도 다양한 연령층이 이화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__ 곽정연(독문 76)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년 계획 세워

2017년 12월 2일(토) 정오, Hillsborough에 위치한 석화자(교육 60) 동창 집에서 42명의 동창들과 함께 정기 모임 겸 연말 파티를 가졌다. 특별히 80세 생일을 맞이한 석화자 동창은 푸짐한 음식을 손수 장만하여 동창들에게 대접하였고, 동창들은 80회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나누었다. 동창회 카톡에 대한 규칙과 방침에 대해 회의했고, 모교 대외협력처의 모바일 뉴스레터 1호가 발행될 것이라는 것과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자 받침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것을 공지하였다.

2018년 1월 6일(토) 정오, San Francisco에 소재한 I Love Sushi에서 30여 명의 동창들과 함께 정기 모임을 가지고 신년 계획을 세웠다. 주요 내용으로 지난 1년간 카풀(Carpooling)에 가장 많이 협조해 준 김정애(법학 65)·강희식(사복 61)·홍순희(교공 68) 동창에게 감사의 선물을 증정했다. 곽정연(독문 76) 회장은 동창 간의 카풀을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2018년 2월 3일(토) 정오, Hillsborough에 위치한 곽정연 회장 집에서 48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 모임을 가졌다. 새로 나온 신소영(법학 06) 동창을 반갑게 맞이하고, 70세 이상의 동창들과 신규 회원들에게 2018년도 모교 동창수첩을 증정하였다. 중요 공지사항으로는 다음 3월달에 있을 총회에 대한 광고와 설명이 있었으며, 다가오는 총회는 특별히 회장 선출이 있으므로 많은 동창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애틀랜타 지회

회장 __ 김영례(심리 79)

성황리에 마친 배꽃들의 향연

애틀랜타 지회에서는 2017년 12월 10일(일) KTN 파티홀에서 부부동반 연말 파티 '배꽃들의 향연' 모임을 가졌다. 동창과 부군들 126명이 참석했으며, 2017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텔런트 쇼에서 3등을 수상한 부채춤과 2016년 텔런트 쇼에서 1등을 했던 합창을 다시 선보였다. 또한 그



정기모임을 갖고 신년계획을 세운 북가주 지회 동창들



'배꽃들의 향연' 모임을 가진 애틀랜타 지회 동창들

외의 음악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동창 간의 친목과 이화인의 긍지를 나누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2018년 1월 14일(일)에는 31명이 서라벌에 모여 정기총회를 열었다. 애틀랜타 지회 이사회의 김아자(의학 63) 이사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2018-2019년도 회장으로 김영례 동창을 선출하였다. 임원으로는 부회장 차희숙(체육 77) 동창, 총무 홍혜진(정외 93) 동창, 회계 구정원(체육 81) 동창, 부회계 김선진(종음 94) 동창, 서기 최인옥(체육 87) 동창이 책임을 맡았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회장으로 수고하였던 장명옥(영문 81) 동창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2월 11일(일) 2월 모임에는 30명이 참가했으며 2018년도 행사 계획을 발표하고 매월 모임을 통해 더욱 발전되고 유익한 만남을 이어 가기로 하였다.

영국 지회

회장__한진경(장미 92)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동창 모임

1월 11일(목)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에 있는 한식

당 요리에서 새해맞이 모임을 가졌다. 이날 새로 등록한 싱그럽고 풋풋한 막내 동창들인 김도형(국문 10)·김희선(커미부 16)·서승연(조소 17) 동창, 그리고 완숙미를 풍기는 선배 동창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서로 덕담을 나누었다. 동창들은 세대를 초월하여 전공 분야에 대한 귀중한 경험들을 나누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즐겼다.

동창수첩과 동창회보를 한진경 지회장으로부터 전해 받은 동창들은, 4월에 있을 정기총회에서의 만남을 기대하며 서로 헤어지기를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이날의 모임을 마쳤다. 4월 정기총회에 다시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런던 한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영국 지회 동창들

오타와 지회

회장__박은경(장미 85)

2017 송년회와 2018 봄맞이 모임

2017년 12월 3일(일) 박은경 동창 집에서 가족 동반으로 모여 성탄과 송구영신의 계절에 맞는 행사를 진행했다. 대림절을 알리는 성경말씀 낭



가족동반으로 모인 2017 오타와 지회 송년회

독과 기도로 시작해서 한 접시씩 준비해 온 한식 상차림으로 푸짐한 저녁식사를 한 후, 각자 지난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다가오는 새해에 바라는 일 등을 이야기하며 감사와 희망 속에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였다.

총동창회에서 때맞춰 보내준 달력과 빨간 동창 수첩도 나누며 이화 교정에서의 추억을 되새기기도 했다.

2018년 2월 18일(일) ‘봄을 여는 오타와 이화인의 모임’에서는 버섯밥과 묵은지 된장국, 나물 등으로 소찬을 나누며 혹독했던 지난 겨울을 털고 산뜻하게 새 봄을 맞이할 대화로 웃음꽃을 피웠다. 동창들 개개인과 가족들의 근황을 나누고, 올해 오타와 지회의 사업과 예산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타와 지회에서는 동창회비의 일부를 해마다 한국의 여성단체에 기부하고 있는데, 올해도 적게나마 우리의 마음을 모아 보내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오타와에서 멀지 않은 곳인 토론토에서 개최될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워싱턴DC 지회

회장 __ 조은희(경제 91)

동창회 총회 및 연말 파티

2017년 12월 8일(금) 워싱턴DC 지회 총회 및 연말 파티가 Tyson's Corner Marriott Hotel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부 총회에서 조은희 동창이 차기 회장으로 인준을 받아 제4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멀리 West Virginia에서 온 김복자(의학 63입) 동창을 비롯한 총 115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2부 연말 파티는 1950년에 졸업한 동창부터 2014년에 입학하여 졸업을 앞둔 새내기 동창까지 연령의 벽을 허물며 다양한 게임을 즐겼고 이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최유정(무용 96) 동창이 진행을 맡았으며, 조난형(국악 81) 동창의 Opening Song, 아이들 앙상블, 최진향(생미 91) 동창의 독창, 서인숙(경영 73) 동창의 부군인 고일찬 목사의 하모니카 연주가 이어졌다. 특별 순서로는 Sunshine Committee 주최로 올해 80세가 된 7명의 동창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있었다. 최윤희(컴공 85) 동창이 연말파티를 위해 만든 퀴즈 게임은 김종숙(사학 93) 동창의 부군인 남태현 교수가 멋지게 진행하여 주었다.

또한 패션쇼를 통해 많은 동창들이 멋진 워킹을 보여 주었고, 이어 다함께 흥겨운 노래에 맞춰 댄스를 하며 아쉬운 연말 파티를 마무리하였다. 여러 동창들이 연말 파티를 위해 기부를 해주어 80세 동창들을 위한 꽃 준비 및 파티 준비, 상품 구입을 위해 사용하였다.

2018년 1월 15일(월) 2018년도 이사회가 조은희



연말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나눈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회장 집에서 있었다. 총 29명이 참석하여 2018년 이사장 및 이사회 회계를 선출하고 이사회 사업 보고 및 재무 보고를 하였다. 이사회에서는 동창 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선교 사업 지원을 하고, 또한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모교 학생들과 지역 대학생들에게 매년 지급하는 장학금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알렸다. 이사회 총회 후 즐거운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2018년 동창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조은희, 부회장 서혜경(정외 90), 총무 최유정(무용 96), 회계 이지은(불문 96), 서기 이영은(경영 01), 문화부 이상명(커미부 02), 사회부 권수미(문정 86), 홍보부 고승현(통계 92), 음악부 주미향(피아노 00).

이사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박옥영(교육 61), 이사회 회계 김경아(영문 85), 고문 이도실(영문 60)·김정자(가정 61)·이명지(영문 67)·이영주(간호 72)·김성혜(융합보건 88), 법률 고문 이소영(커미부 78), IT 고문 최윤희(컴공 85), 감사 이해자(문정 63)·안경미(의학 69).

토론토 지회

회장 __ 박현주(물리 89)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준비를 위해 시동

2017년 11월 26일(일) 개최한 연말 파티는 토론토 지회의 가장 큰 연중행사로, 1부 순서인 정기 총회를 통해 새 회장을 선출하고, 2부 순서로 맛 있는 디너와 게임 등으로 즐거운 연말 파티를 가졌다. 2017년은 캐나다 건국 150주년으로 ‘Oh Canada! Oh Ewha!’라는 제목으로 캐나다를 상징하는 빨강과 이화여대의 배꽃을 상징하는 흰색에 어울리는 의상과 액세서리로 만찬장이 화려하게 빛났다. 모두가 함께 배운 포크댄스, 게임, 퍼포먼스 등으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1년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2018년 1월 27일(토)에는 임원 모임을 갖고 새 회장단으로 회장 박현주 동창 이하 10명의 임원을 선출하였다. 특히 올해는 토론토에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열리게 되어 전 회장단들로 구성된 고문단 그리고 또 특별히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담당 운영 임원팀이 구성되어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한 결의를 하였다.

2월 10일(토)에 1년에 서너 차례 진행되는 이화기도회 모임인 횃불회의 첫 모임을 가졌다. 갑작스러운 눈보라로 인해 적은 인원이 모였으나 최경자(영문 63) 목사가 ‘Valentine’s Day와 Ash Wednesday’라는 제목으로 전한 말씀으로 영적인 충족을 얻고, 준비해 온 갖가지의 나물들로 그 유명한 이화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다. 올해 기금 모금을 위한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프로젝트도 2부 순서로 진행되었다. 나에겐 짐이지만 다른 사람에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을 가져와 필요한 사람에게 소중한 보물이 되는 행사로 동창회에 계는 수익금이 생기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모인 기금도 감사했지만, 웃을 입어 보고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주고 웃음꽃이 한바탕 피어나는 즐거움과 동창 간에 쌓이는 정이 몇 배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2월 13일(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었다. 작년부터 고문단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준비가 이루어져 왔고 올해 처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준비위원회 모임이 진행되면서 보다 본격적인 세부 사항들이 결정되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Northern Lights’라는 주제로 어둠 속에서도 화려한 빛이 되어 주며, 진선미의 이화 정신을 곳곳에서 발휘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이화인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월 3일(토) 정기총회를 열고, 1년 사업의 시발점에서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여 작년 한 해의 사업 보고와 회계 보고를 듣고 질의와 응답을 하고, 새로운 시안들의 결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는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 2017년 한 해 동안 수고한 권용옥(영교 74) 회장 이하 전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만능 엔터테이너 윤미경(사복 94) 동창의 진행으로 즐거운 게임 시간도 가졌다.

토론토 지회의 특징은 크고 작은 동호회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선사인(선한 사마리아인) 봉사회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4리터 우유팩으로 뜯자리, 방석, 쿠션 등을 만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3세계의 나라에 보내는 봉사활동을 하며, 오랫동안 이 봉사를 해온 신영봉(교공 69) 동창의 지도 하에 1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화음동호회는 지난 3년간 김미선(종음 87) 동창의 꾸준한 리더십 아래 정기적으로 모여, 노래와 악기로 누구라도 자유롭게 참석하여 우정을 다지고 있다. 가야금 동호회는 우리 악기 가야금을 통하여 찬양도 하고 우리 가락으로 연주하는 모임이다. 이외에 녹미회, 글벗모임, 성경공부반, 걷기모임, 골프모임 등 다양한 동호회에 각자의 재능과 관심에 따라 참가하며 친목을 돈독히 하고 있다.

포틀랜드 지회

회장_ 김미진(도예 79)

PSU 한국어과 추진 기금 전달식 가져

2017년 12월 4일(월)에 창 밖으로 조용한 호수가 보이는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연말 모임을 가졌다. 오랜만에 참석한 신옥숙(약학 60)·김민자(생미 64)·노윤(법학 01입) 동창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고 맛있게 요리한 퓨전 생선 요리를 먹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추억의 한 페이지로 장식했다. 총동창회에서 보내온 캘린더를 동창기금 마련 차원에서 김민자 동창이 모두 사



토론토 지회의 기도회 모임인 횃불회 모임



호수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연말 모임을 가진 포틀랜드 지회

서 나누었고, 그 예쁜 마음에 모두가 박수로 답하였다. 또한 빨간 동창수첩을 받아들고 반가운 마음에 잠시 모교 캠퍼스를 떠올리며 향수에 젖었다. 한편 신옥숙 동창이 ‘성공한 이민 부부’로 선정되어 마을신문에 게재되었기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다.

모아 놓은 회비를 모교와 포틀랜드 스테이트 대학의 한국어과 추진 기금으로 보내기로 만장 일치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박상주(불문 63) 동창이 PSU(Portland State University) 담당교수와 연락하여 2018년 1월 19일(금)에 PSU 캠퍼스에서 한국어과 교수와 명예총영사, 김미진 회장, 지회 총무, 박평화(영문 00)·박상주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다음 모임은 May Day에 맞추어 5월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다음 모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로 약속하며 헤어졌다.

휴스턴 지회

회장_정미선(수교 85)

21년째 꾸준히 해오고 있는 설맞이 어르신 식사대접

2017년 9월 휴스턴을 강타한 폭우로 실외에 빠

졌던 동창(36명)들이 12월 연말 파티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으며 아픔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2018년 1월 모임은 우리 고유 명절인 설에 한인 노인회에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한 준비 모임으로, Brio Tuscan Grill에서 선배들의 덕담과 함께 깊은 교제와 우정을 쌓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부터는 노인회관 사정으로 떡국에서 한정식으로 메뉴를 바꾸어 ‘구정대잔치’를 열기로 하였기에 음식과 반찬 등을 자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2월 14일(수) 20여 명의 동창들이 1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설맞이 식사 대접을 하였다. 가야금과 장고 공연에 이어 권은진(의직 84) 동창의 독창으로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였고,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거의 마칠 때에 구희경(사회과교 육 86) 동창의 반주에 맞추어 <사랑해 당신을>과 <소양강 처녀>를 참석했던 모든 동창들이 합창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하호영 노인회장은 “휴스턴의 다른 대학교 동창들이 하지 않는 일을 이화여대 동창회에서는 21년째 언행일치로 경로 식사 대접을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주 월요일 어르신들 영어회화 기초 강좌까지 꾸준히 봉사해 오고 있다”고 칭찬해 주었다. 우리 휴스턴 지회는 105명의 동창이 등록되어 있다.



설을 맞이하여 어르신들 식사대접을 한 휴스턴 지회 동창들

김양식(영문 54) 동창

3월 10일(토) 인도 첸나이 소재 'Institute of Asian Studies'에서 김양식 동창의 타밀어 번역 시집 (김양식 시인의 시 50여 편을 타밀어로 번역)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또한 인도박물관 관장이자 시인인 김 동창은 네루대학교 한국어과에 장학금 지원, 한·인문화연구 부설기관 <도서출판 산띠>를 통한 인도 문학 번역·출판을 비롯하여 해외에 인도 문학을 알린 공적을 인정받아 3월 14일(수) Sahitay Academi에서 'Honorary Fellowship'을 수상하였다.



김양식 동창

송희성(국문 60) 동창

2017년 12월 7일(목) 열린 한국지역연합방송TV 창사 2주년 기념식에서 사회복지 언론대상을 수상하였다. 송희성 동창은 한국여성지도자연합회장을 역임하였다.



송희성 동창

황연대(의학 63) 동창

대한장애인체육회 고문인 황연대 동창은 3월 18일(일) 열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폐회식에서 뉴질랜드의 아담 홀 선수와 핀란드의 시니 피 선수에게 자신의 이름을 딴 '황연대 성취상'을 수여하였다. 황연대 성취상은 1988년 서울 대회



황연대 동창

때 처음 제정돼 패럴림픽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 남녀 선수 1명씩에게 대회마다 시상하고 있다.

이영자(가정 66) 동창

LA 뉴밀레니엄 라이온스 클럽의 신임 회장으로 이영자 동창이 선출되어 취임식을 가졌다. 한국인이 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LA 뉴밀레니엄 라이온스 클럽이 창단한 지 17년 만에 처음이다.



이영자 동창

서용좌(독문 67)

독문과 1회 서용좌 동창이 작품 『흐릿한 하늘의 새』로 2017년 제33회 PEN 문학상(소설 부문)을 수상하였다. 주인공은 1975년생으로 여자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 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도 시간강사로, 그것도 서울 모교에서 밀려 지방대학에 겨우 자리를 얻음으로써 암울한 젊은이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심사평은 '문체도 내용도 완전히 독특하고, 서사보다 사유가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시상식은 2017년 12월 22일(금)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서용좌 동창

권혁란(제약 72) 동창

부산 중구에서 3대째 신창한의원, 신창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권혁란 동창이 자서전 『더 낮은 곳을 향한 권혁란의 진심』을



권혁란 동창

정든 이화를 떠나는 정년퇴임 교원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교에서 교육과 연구에 헌신한 동창들이 2월 28일(수)

정든 이화를 떠났다. 정년퇴임한 동창들의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다.

김광옥(식영 75·식품공학전공) 동창

1984년 3월부터 모교 가정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와 공과대학 식품공학과에 재직하며 식품 전문가 양성과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식품의 “감각평가”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실용



김광옥 동창

적인 업적을 이루어 해당 분야를 식품산업체와 학계에 소개하고 학술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탁월한 연구력을 인정받아 2014년 이화여대학술상을 수상했다. 또한 초대 식품공학 학과장, 공과대학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등 많은 보직을 거치며 공대 교육환경 개선과 모교 발전에 헌신하였다. 현재 모교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다.

김선옥(법학 75·법학과) 동창

1995년 9월부터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

면서 수많은 법조인을 배출하고 학과와 대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한국 최초의 법여성학 교수로서 여성의 인권 보장, 여성의 권리 및 지위 향상 등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법이론 및 정책연구 등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모교 제14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를 비전으로 이화 공동체의 역량 극대화와 여성 친화적 교육 환경 구축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한국 최초의 여성 법제처장,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한독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김선옥 동창

오숙환(동양 75·동양화전공) 동창

1994년 3월부터 모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에 재직하며 예술문화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에 헌신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대통령상, 이당미술상, 대한민국기독교미술인상, 이중섭미술상

출간하고, 2017년 12월 20일(수) 오후 3시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영상홀에서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를 열었다. 중구 토박이로 살아온 권 동창의 중구 사랑 이야기가 이 자서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전혜자 동창

전혜자(체육 76)

순천향대 교수로 재직 중인 전혜자는 동창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다. 전 동창은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 여성스포츠위원회 위원, 한국특수체육학회 회장, 대한장애인론불연맹 회장, 순천향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규미 동창

이규미(심리 77) 동창

2017년 12월 16일(토) 세종대에서 개최된 ‘한국상담심리학회 2017 정기총회’에서 이규미 동창이 초대 한국상담심리학자상을

을 수상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시 심의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모교 부임 아래 조형예술대학장 등 많은 보직을 거치면서 모교와 조형예술대학을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였다



오숙환 동창

정영순(사복 75·사회복지학과) 동창

1988년 3월부터 모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직하여 사회복지사의 양성과 사회과학대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 노사정위원회 사회소위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학회의 부회장을 지냈다. 모교 부임 아래 사회복지대학원장, 교수협의회 회장 등 많은 보직을 거치며 사회과학대학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정영순 동창

채현경(피아노 75·작곡과) 동창

2005년 3월부터 모교 음악대학 음악학 전공교수



채현경 동창

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음악대학의 발전에 기여를 하였다. 2011년부터 이화음악연구소장을 역임하며 동아시아 근현대 음악 연구를 통해 음악 분야에서는 최초로 한국연구재단의 대형 연구

사업을 수주하였다. 연주 중심의 한국 음악계에서 음악의 학문적 접근을 실천함으로써 모교의 음악학 프로그램을 오늘날 한국 음악학에서의 선도적 모델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희(생명 76·과학교육과) 동창

2003년 3월부터 모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에 재직하여 과학(생물)교사의 양성과 과학교육 발전에 기여하였다. 식물 생태학과 생물교육의 두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과학교육과장 및 공통과학연계전공주임교수 보직을 맡아 모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발전에 헌신하였다. 과학교육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이화여대 부속 이화금란중학교 교장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역임하는 등 실력 양성과 능력 계발 측면에서 귀감이 되어 오고 있다.



여성희 동창

수상하였다. 이 동창은 한국심리학회장, 한국상담심리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장영란(섬예 77) 동창

1월 13일(토)부터 2월 25일(일)까지 일본 이타미 시립공예미술관에서 한국 자수 컬렉션 특별초대 기획전을 가졌다. 활옷을 비롯 병풍, 족자, 흉배, 수조각보 등 장영란 동창이 평생 수집 소장해



장영란 동창

온 작품 중 250점을 전시하였으며, 이타미 시립공예미술관 30년 개관 역사상 유래 없는 최다 인원이 관람한 매우 획기적인 전시로 기록되었다. Tadaaki Ohno 미술관장은 장영란 동창의 인터뷰와 전시 일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미술관에 소장하기로 하였다.

황은미(국제사무 77) 동창

커리어컨설팅트협회 회장인 황은미 동창이 2017년 12월 13일(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SSIST)

CEO Forum에서 '자랑스러운 원우상'을 수상하였다. '2017 aSSIST 자랑스러운 원우상'은 사랑과 나눔의 정신에 입각한 탁월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 및 사회공공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과 성과를 이룬 리더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황은미 동창

박경실(체육 78) 동창

박경실 동창이 회장으로 있는 파고다교육그룹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언어교육 공식공급사로 선정되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힘을 쏟았다. 파고다교육그룹은 지난 2014년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공식공급사로 선정된 이래 조직위원회 임직원 언어 교육, 언어별 번역과 감수 서비스 제공 및 통·번역사 파견을 지원했다. 또한 3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언어 교육을 진행했다.



박경실 동창

신문자(영교 78) 동창

조선대 언어치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신문자

동창이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8년판에 등재됐다. 신동창은 35여 년간 언어병리학(Speech-Language Pathology) 분야의 임상과 교육 경력을 쌓았으며, 한국인 최초로 미국언어청각학회 팰로우십을 수상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등재됐다.



신문자 동창

정현숙(서양 78) 동창

정현숙 동창이 3월 1일(목)부터 5월 24일(목)까지 도립 전라남도 옥과미술관 아산1실에서 '역사에 빛을 더하다' 초대전을 갖는다.



정현숙 동창

조은미(무용 78) 동창

4월 5일(목) 오후 8시 모교 삼성홀에서 열린 '제23회 현대무용단-탐 레파토리 공연'에서 예술감독 조은미 동창의 시대정신과 철학, 단체의 춤 특성이 돋보이는 작품 <비탄>과 <여기에서 서서>를 선정



조은미 동창

보건교육콜로키움

보건교육콜로키움(회장 김명·융합보건 74)은 2월 4일(일) 장학위원회를 열고 '보건교육콜로키움 장학금' 수혜자로 김수경(융합보건 16) 동창을 선정하였다. '보건교육콜로키움 장학금'은 차세대 보건교육전문가 인재양성을 목표로 조성된 장학금으로, 이번에 세 번째 수혜자를 선정하였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장학위원회 회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일(목) 진행되었다.

보건교육콜로키움은 2003년 한국인의 건강행태연구회에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구, 출판, 장학금 모금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융합보건학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보건교육 전문가 단체이다.



하여 무대에 올렸다. 2001년에 초연된 <비탄>은 제1회 서울공연예술제에서 안무상과 연기상을 수상하였다. 2005년 발표된 <여기에 서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 멕시코에서 초청공연을 하였다.

김영란(조소 79)·이선희(조소 81) 동창

김영란·이선희 동창이 1월 3일(수)부터 2월 3일(토)까지 서울시 종로구 소재 갤러리 평창동에서 ‘사색당파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김영란 동창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예술감독을 맡게 되었다.



김영란 동창 이선희 동창

임정희(가관 79) 동창

사단법인 밝은청소년 이사장인 임정희 동창이 모교와 공동 주관한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젝트 허들링 청소년 합창축제를 2017년 12월 30일(토) 서울 흥지동 상명아트센터 계당홀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몽골, 베트남, 북한, 중국, 필리핀 등 17개국 관련 다문화 청소년 134명과 일반 학생 등 400명이 참가하였다.



임정희 동창

송기정(불문 80) 동창

모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송기정 동창이 2017년 12월 9일(토)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불어불문학회 정기총회 및 겨울학술대회에서 제53대 한국불어불문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송기정 동창

안해영(약학 80) 동창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 약리학 부국장을 지낸 안해영 동창이 1월 24일(수)부터 2월 6일(화)까지 방한했다. 방한 기간 중 안 동창은 FDA 신약 신청 자문, 글로벌 신약개발 관련 자문 컨설팅 사업(안바이오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안해영 동창

함미연(불문 81) 동창

파리 한글학교 학교장으로 재임 중인 함미연 동창이 제11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 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함미연 동창

김정효(서양 83) 동창

2월 1일(목)부터 11일(일)까지 금호 미술관 3층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김정효 동창

이윤애(교육 83) 동창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제6대 센터장으로 전 전북해바라기센터 부소장 이윤애 동창이 취임했다. 이 동창은 2018년 시무식을 시작으로 센터에서 임기 2년 업무를 시작했다. 이 동창은 1990년 여성의 전화로 활동을 시작하여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전북발전연구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여성의 자아실현과 권리 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가이다.



이윤애 동창

나진숙(조소 84) 동창

2017년 10월 17일(화)부터 2018년 1월 17일(수)까지 갤러리 Well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The

Silver Wave 2017: The Blue Echo〉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이번 전시에 40여 점의 평면과 입체 작품을 출품하였다.



나진숙 동창

이인혜(서양 84) 동창

2월 28일(수)부터 3월 5일(월)까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소재 인사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인혜 동창

지은림(영문 84) 동창

지은림 동창이 한국교육평가학회 제17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18년 1월부터 2년간이다. 한국교육평가학회는 교육측정 및 교육평가 분야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연구해 한국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3년 7월 9일에 창립한 학회다. 지동창은 경희대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경희대 서울 교무처장 겸 연구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림 동창

박인옥(서양 85) 동창

2월 27일(화)부터 3월 13일(화)까지 진주시 정촌면 꽃골아트갤러리에서 박인옥 동창이 제14회 개인전 ‘하얀 희망 파란 마음’을 개최하였다. 이어 3월 21일(수)부터 27일(화)까지 서울 리수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열었다. 박 동창은 한국미협, 진주미협,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등에 소속돼 있다.



신미선 동창

신미선 동창이 2018년 2월 10일(토) 한국미술협회 성남 지부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신동창은 성남미협 최초 여성 회

장으로서 성남시의 문화 발전과 지역 작가들의 왕성한 창작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며 4년의 임기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강영매(중문 86) 동창

모교 통역번역대학원 겸임교수 강영매 동창이 번역한 『중국인쇄사』(전5권)가 2월 23일(금) 제38회 한국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을 수상했다. 『중국인쇄사』는 2017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7년 12월 22일(금) 제23회 한국출판학술상(한국출판연구소주관)도 수상했다.



강영매 동창

김정미(생명 86) 동창

2월 27일(화) 열린 한국동물약품협회 정기총회에서 김정미 동창이 대표로 있는 베트올(주)이 동물의약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 표창을 받았다. 베트올은 동물진단 전문회사로 동물질병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수출 기업이다.



김정미 동창

남연숙(도예 86) 동창

1월 16일(화)부터 20일(토)까지 ‘The Truth of Tropical Island Guam’ 전시회를 일본 Teikyo University Museum in Tokyo에서 가졌다. 이 전시회는 Guma’ Famagu’ on Tano’ Yan I Tasi Dance Group 지도자 Kyoko Nakayama의 협조와 초대로 전시를 하게 되었다. 한편 제18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서 3월 7일(수)부터 10일(토)



남연숙 동창

까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진행된 해외 지역회의(미주)에 참석했다. 또한 3월 한 달간 아트전을 팜 대학 이슬라 갤러리에서 가졌다.

노정희(법학 86) 동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동창이 법원도서관 관장으로 발탁되었다. 노정희 동창은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다.

박영숙(경영 86) 동창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2001년부터 JFK 공항에 입점시켰던 면세점을 ‘Madison Ave’로 재정비하였다. 뉴욕 패션 일번지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양유나(서양 00) 동창의 ‘Yuna Yang’ 제품과 더불어 Molton Brown, Malvis 등 품격을 갖춘 유럽 제품과 K-Beauty 화장품으로 전세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박영숙 동창

박현순(사복 86) 동창

1월 9일(화) 충북도 여성정책관에 임용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박현순 동창은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26년여의 사회복지 관련 경험과 활발한 여성 단체 활동을 통해 복지 현장을 두루 거친 여성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박현순 동창

이윤상(사복 86) 동창

2017년 11월 20일(수)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국민 포장)을 수여받았다. 나눔인터내셔널 대표 이윤상 동창은 대북 인도적



이윤상 동창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고, 민간통일운동 활성화에 귀감이 된 점을 인정받아 이 훈장을 받게 되었다.

조경숙(생명 86) 동창

조경숙 동창이 한국공학한림원 신입 회원으로 선정되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1월 3일(수) 신입 정회원 45명, 신입 일반회원 78명을 선정하여 명단을 밝혔다. 조 동창은 모교 환경공학과



조경숙 동창

소속 교수로 환경생물공학 분야 연구의 권위자이며, 환경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김연수(독문 87)

독문과 21회 김연수 동창이 2018년 3월부터 강원거점국립대학교(춘천 캠퍼스) 인문대 독어독문과에 임용되었다. 김 동창은 1983년 이화여대에서 독어독문학 공부를 시작하고 대학원에서



김연수 동창

석사학위를 마친 후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그 이후 1994년부터 독일에서 DAAD 장학생으로 수학하며 2005년에 우베 온존(Uwe Johnson)의 현대역사소설『기념일들 Jahrestage』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다. 2007년부터 2017년 까지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에서 인문한국(HK) 사업의 아젠다 ‘탈경계인문학의 구축과 확산’ 수행에 참여하였다.

장현주(서양 87) 동창

장현주 동창은 2017년 11월 23일(목)부터 2018년 2월 13일(화)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갤러리 비케이에서 개인전 ‘정직한 심장의 작용’을 열고 성황리에 전시를 마쳤다.

조보영(철학 87) 동창

2017년 12월 15일(금) 조보영 동창이 LF 신임 전무로 승진하였다. 조 동창은 액세서리 매출 상승과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공헌하고, 액세서리 사업 전반을 양적으로 성장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조보영 동창

하은희(의학 87) 동창

모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하은희 동창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국제환경역학회 실행 이사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2020년까지다. 하 동창은 국가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지원 센터장을 맡아 민감 계층 환경보건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하은희 동창

강문숙(종음 88) 동창

독일의 유명한 소프라노, 아티스트이자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강문숙 동창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 독일 TV 방송국 및 온라인 미디어의 기자로 활약하였다.



강문숙 동창

고영선(정외 88) 동창

타임스퀘어 MD를 총괄해 온 고영선 동창이 홈플러스로 자리를 옮겨 테넌트 MD를 총괄하게 되었다. 고 동창은 CJ홈쇼핑, 롯데홈쇼핑, GS왓슨스를 두루 거친 리테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고영선 동창

박선희(장미 88) 동창

모교 조형예술대학 교수 박선희

동창이 3월 8일(목)부터 4월 6일(금)까지 서울 청담동 MCM 하우스에서 개인전 '1+1=0'을 개최하였다.



박선희 동창

금사영(서양 89) 동창

2월 19일(월)부터 3월 1일(목)까지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김사영 동창

박가나(서양 89) 동창

2017년 11월 30일(목)부터 12월 11일(월)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G-HA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박가나 동창

오지은(화학 89) 동창

1월 9일(화) 포스코가 발표한 2018년 정기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에서 오지은 동창이 임원으로 신규 발탁되었다. 오 동창은 광양제철소 기술혁신그룹장이 되어 광양제철소의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주력하고 있다. 오 동창은 포스코 역사상 첫 여성 공장장 출신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오지은 동창

정순둘(사복 89) 동창

모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정순둘 동창이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21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임기는 2018년 1월부터 1년간이다.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는 가족복지 관련 정책 및 제도 개발, 회원의 전문적 자질개발 등을 통해 한국가족복지의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학회다.

한유숙(도예 90) 동창

3월 13일(화)부터 22일(목)까지 향기로운 그릇 ‘청향(淸香)-한유숙 전’을 안국동 갤러리 담에서 열었다.

남궁현(약학 91) 동창

남궁현 동창이 GC녹십자 마케팅본부 신임 전무로 영입되었다. 남 동창은 아스트라제네카 영업본부장, 아시아 지역 마케팅 이사를 거쳐 헬스펫 뉴트리션 코리아 대표를 역임했다.



남궁현 동창

오경아(서양 91) 동창

2월 1일(목)부터 11일(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오경아 동창

장정아(조소 91) 동창

서울과 뉴욕에서 서양화 작가로 활동 중인 장정아 동창이, 이탈리아 정부 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수상 행사를, 미국에서 전시 활동하는 전 세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상 심사에 선정되어



장정아 동창

‘2018 국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상(International Prize Leonardo Da Vinci – The Universal Artist 2018)’을 수상했다. 또한 세계적인 전시 행사인 이탈리아의 베니스 국가 비엔날레 초청작가로 초대되어 3월 16일(금)부터 3월 19일(월)까지 VENEZIA ART EXPO Exhibition of Nations에 전시 작가로 참여했다.

김정숙(디대원 93) 동창

영남대학교 의류패션학과 교수 김정숙 동창이 (사)한국패션일러스트레이션협회 1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본 협회는 전국의 패션 관련 대학 교수 및 강사, 작가,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국내 유일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연구 및 전시 단체이다. 임기는 2018년 2

월 1일(목)부터 2020년 1월 31일(금)까지이다.



김정숙 동창

김혜주(통계 93) 동창

빅데이터 전문가 김혜주 동창이 KT에 영입된 지 2년 만에 상무로 승진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김 동창은 모교 졸업 후 서울대에서 통계학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김혜주 동창

나승연(불문 95) 동창

나승연 동창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의 영어 사회를 맡았다. 나 동창은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약한 바 있다. 현재는 영어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업체 ‘오라티오’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나승연 동창

송자인(조소 96) 동창

디자이너 송자인 동창이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의상에 참여했다. 개회식에서 무용총 벽화여인들, 문(門) 모양 구조물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한국의 IT 기술을 군무로 표현했던 ‘미디어 퍼포머’들, 성화가 점화된 뒤 불춤을 추던 도깨비들, 폐회식에 등장한 색색의 던 ‘꼭두’와 다섯 어린이의 의상도 송 동창의 작품이다.



송자인 동창

신주희(한음 97) 동창

전통 대금 연주자 신주희 동창이 2017년 12월 28일(목) 밀라노 오디토리움 라투아다 홀에서 풀 룸 연주자 로렌조 바치니, 피아니스트 정지은 등 현지에서 활동하는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유럽 현지에 한류문화를 전하는 ‘패스트 앤 프레젠혣(Past and Present)’ 콘서트를 선보였다.



신주희 동창

이지은(조소 97) 동창

2017년 12월 1일(금)부터 29일(금) 까지 갤러리 PLANET에서 ‘소박한 일상, 시간의 파편들’이라는 타이틀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지은 동창

서선경(회화판화 03) 동창

2월 20일(화)부터 3월 7일(수)까지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 위치한 갤러리 씨포먼트에서 ‘비주얼 스토리-감성; 공감’ 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하였다. 서선경 동창은 제11회 서울미술대상전 우수상 및 다수의 공모전에서 수상하였다.



김주희 동창

김주희(동양 04) 동창

2월 1일(목)부터 20일(화)까지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갤러리 자작나무’에서 ‘사랑’을 주제로 한 여섯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재직 중인 김주희 동창은 ‘사랑’을 노래하는 작품 20여 점을 전시하였다.



김주희 동창

길정은(관현 05) 동창

네 명의 하피스트로 구성된 서울하프앙상블(리더

길정은)의 연주회가 2017년 12월 19일(화) 서울 서초동 코스모스악기 본사 8층 코스모스홀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하프의 명가 ‘라이언 앤 힐리’와 ‘살비’, 국내 유통사 코스모스악기가 하프문화 발전을 위해 기획 주최하였다.

정희진(피아노 05) 동창

1월 14일(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열었다. 목원대학교 음악교육과, KB 청소년 음악대학에서 강사를 역임한 정희진 동창은 현재 모교를 비롯 충신대학교 콘서바토리, 인천예고, 안양예고, 충남예고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방미현(경제 07) 동창

방미현 동창의 단편소설 「봄, 달」이 2018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방동창의 「봄, 달」은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안정된 문장으로 차분하게 펼친 작품이다.



방미현 동창



이도연 동창

이도연(서양 08) 동창

2월 6일(화)부터 26일(월)까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키미아트에서 ‘회귀(回歸)’ 개인전을 열었다.



허연주 동창

허연주(의학 09) 동창

허연주 동창이 속한 이대목동병원 위암센터 연구팀은 2월 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이틀간 개최된 대한종양외과학회 국제학

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김윤아(성악 10) 동창

소프라노 김윤아 동창이 첫 디지털 싱글곡 <하나가 되어>를 발표했다. 이 곡은 대중적 멜로디에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진 팝페라로, 동방의 빛 대한민국이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세계와 함께 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아 동창

김보란(대학원 11)·양효선(수학 11) 동창

2월 6일(화) 에쓰



김보란 동창

양효선 동창

오일 본사에서 열린 ‘제7회 에쓰오일 우수학위 논문상’ 시상식에서 김보란·양효선 동창이 각각 우수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1,500만 원과 4,000만 원의 연구 지원금을 받았다. 2011년 제정된 에쓰오일 우수학위 논문상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대학총장협회의 추천으로 해마다 우수 연구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김·양 동창을 포함 9명의 국내 과학자에게 연구 지원금 총 2억 3,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김경은(디대원 12)

모교 디자인대학원 동창회 광고 브랜드 전공 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은 동창이 2018년 3월 1일(목) 자로 수원여대 시각디자인 학과의 전임교원이 되었다. 김동창은 “모교 디자인대학원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 예술학의 교육적 소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경은 동창

정양준(서양 13)

2017년 12월 27일(목)부터 2018년 1월 2일(화)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갤러리 도스에서 ‘Transformed Place’ 전을 열었다. 정양준 동창은 현실 이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에 집중하며, 삶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다.

전현선(서양 14)

2월 23일(금)부터 3월 25일(일)까지 대안공간 루프에서 일곱 번째 개인전 <나란히 걷는 낮과 밤>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신작 시리즈인 <나란히 걷는 낮과 밤>을 포함하여 총 45점의 회화 작품이 전시되었다. 전현선 동창은 독일 <AM Studio, AM Planner, Berlin>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입주 작가로 활동했으며, 2017년 종근당 예술지상을 수상했다.

최수지(관현 14)

최수지 동창의 귀국 클라리넷 독주회가 1월 27일(토)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열렸다. 음악회는 클래시 라운지의 주최로 피아니스트 김예라가 협연하였다. 최 동창은 현재 서울클라리넷 앙상블, 모노풀 클라리넷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재림(동양 16) 동창

양재림 동창이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알파인 스키 시각 장애 부문에 출전하여 7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 3급 장애인인 양 동창은 2018년 세계장애인알파인스키 월드컵에서 여자 슈퍼대회전 1위, 여자 회전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양재림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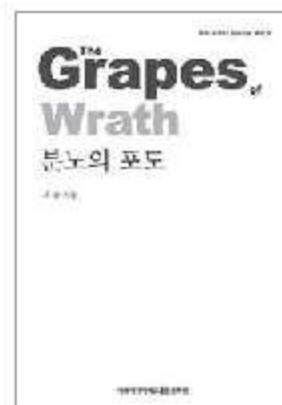
동창이 펴낸 새 책

졸업연도 순서로 계재

분노의 포도 서숙(영문 68)

서숙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전 모교 교수 서숙 동창이 자신의 강의록을 소설별로 엮어 펴내는 '서숙 교수의 영미소설 특강' 시리즈의 여덟 번째 책을 출간하였다.『분노의 포도』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대를 배경으로 서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조드 일가의 이야기이다. 서 동창은 독자와 소설을 함께 읽어 나가듯이 한 장 한 장 설명하면서, 저자의 예리한 사회 인식과 연대하는 존엄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꼼꼼히 분석하였다.



김명숙류 산조춤 소천 무보집 김명숙(무용 76)

김명숙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이 책은 황병기류 가야금 산조곡에 맞춰 구성된 김명숙류 산조춤을 무보로 옮긴 것이다. 김명숙류 산조춤은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를 한국 춤의 본질적인 움직임에 담아 '소리가 춤이 되고, 춤이 소리가 되는' 악가무일체를 지향하는 작품이다. 김명숙 동창은 모교 무용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늘휘무용단 예술감독,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국립무용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잃어버린 장갑 김지수(종음 85)

김지수 지음 / 위드러브북스

- 김지수 동창이 창작 동화책을 출간하였다. 미미라는 어린 고양이의 시선으로 그려낸 『잃어버린 장갑』에는 아이들이 따뜻한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축복받으며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한국 여성을 위한 목회상담 정희성(영교 85)

정희성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이 책은 한국 교회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한국 문화, 기독교 문화, 젠더 문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 을 억압해 온 문화적 배경을 살펴본다. 또한 오늘날 여성들에게 유익한 목회상담의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정희성 동창은 한국목회상담협회 부회장이며, 모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술분야진로탐색카드 김효정(동양 97)·심효영(대학원 05) 동창

김효정·정종우·심효영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미술분야진로탐색카드』는 미술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최초의 직업 카드이다. 단순히 미술 분야 직업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관련 직업과 연관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지식도 포함하고 있어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탈경계 사유와 서사의 윤리 연남경(국문 97)

연남경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이 책은 최인훈, 이청준 등 주요 작가들뿐 아니라 김학철과 같은 조선족 작가, 김유경, 김혜숙 등 탈북 여성작가 등의 작품에서 이주라는 사건이 그려지는 양상을 꼼꼼히 주제한다. 이주로 인해 격변하는 인간 정체성과 새로운 주체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방인의 존재가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다. 연남경 동창은 모교 국문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폰타나 맛으로
이탈리아를
기억하다

폰타나 맛으로
이탈리아를 기억하고
폰타나 맛으로
나폴리 파스타집을 기억하고
폰타나 맛으로
그곳의 사람을 기억한다



맛으로 떠나는 여행 ✈

Fontana

폰타나



파에몬테
양송이 크림수프



아르베끼나
올리브유



나폴리 청기 토마토
파스타소스



카르니아
크림 파스타소스



스페인 레몬
알리올리 드레싱



발사믹
글레이즈



화이트비뇨기과의원

White Dermatology & Urology Clinic

진료안내

- 각종 피부및 비뇨기과 질환
 - 탈모 치료
 - 레이저 포경수술, 정관수술
 - 갱년기 장애, 성기능 장애
- 레이저 클리닉
 - 기미, 주근깨, 잡티, 오타모반, 검버섯
 - 여드름
 - 문신, 섬유종, 혈관종, 한관종, 비립종
 - 점, 사마귀, 티눈, 쥐젖, 곤지름
- 메디컬 스킨케어
 - 레이저 처치후 관리
(미백, 기미, 여드름, 모공)
 - 진정관리
 - 스킨 스케일링
 - 보톡스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9:00 – 오후 7:00
- 토요일 오전 9:00 – 오후 3:30
- 공휴일 오전 9:00 – 오후 1:00
- 점심시간 오후 12:40 – 오후 2:00

화이트비뇨기과의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86 화이트쇼핑몰 4층
white1004.co.kr

예약 및 진료문의

031) 269-0100

최고의 성혼율 S노블



"Looking for spouse?"

참 한결같은 S노블

아무나 가을을 빼먹하지 않고 향후로 만남을 준비하여 합니다.
당신과 100% 만족을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꼭 맞는 만남을 찾고자 노력하는 S노블
만족의 민기가 아름답니다. 15년 만남을 위로 100%의 약속, S노블
성혼식까지 무기한·무제한 결혼정보 서비스로 성혼을 책임집니다.

SINCE 1999

www.s-noble.com

여화여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1-개포 우편번호 130-0001 | 웹사이트 주소: www.s-noble.com

대한민국 최초 성취층 결혼정보업체
 S Noble
1999